

마을 잡지, 마을을 기록하다 • 스티어 교하마을기자단



마을 잡지, 마을을 기록하다
• <디어 교하> 마을기자단



들어가는 말

이동구

〈디어 교하〉가 처음 발행이 2017년 여름이었으니 4년째를 지나고 있다. 소소한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공유하고자 시작한 잡지가 벌써 4년을 이어가고 있다.

이웃이지만 얼굴 볼 일이 없는 신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디어 교하〉는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은 듯하다. 〈디어 교하〉 배포처이기도 하면서 단골 가게이기도 한 동네 가게를 들를 때마다 ‘이번 호도 잘 봤다’는 이야기를 늘 듣는 걸 보면 말이다. 경기 아카이브 총서와 관련하여 〈디어 교하〉의 기록을 공유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자단은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디어 교하〉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파주의 교하택지지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룬다. 현재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우연히 알게 된 예술가의 삶이라던가, 마음이 가는 카페나 가게의 사연이 궁금해서 취재를 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다룬다. 간혹 마을의 주차문제라던가,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혹은 사회 운동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다.

시공간적으로 볼 때 〈디어 교하〉는 대체로 ‘지금’의 ‘교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교하라는 지역은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지 15년 남짓된 미니 신도시이다. 일산이라는 거대 1기 신도시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완성된 신도시를 떠나 새로운 신도시로 옮겨 온 사람들은 공유하는 정서가 있다.

점점 서울을 닮아가는 1기 신도시의 번잡함을 떠나고 싶지만 쉽사리 도시를 떠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아파트로 가득하고 학원으로 가득한 일산에 비해 교하는 훨씬 더 푸른 자연이 가까이 있었다.

출판단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하로 이주한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은 이 점에 끌리지 않았을까?

교하 바로 옆으로 10배 규모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주민들은 대부분 운정 신도시로 떠났다. 어쩌면 교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처음 교하로 이주할 때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짜증 섞인 시선으로 마을을 질주하는 덤프트럭을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이곳도 결국 서울과 다름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조금 섞여 있는 듯하다.

<디어 교하> 기자단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교하라는 곳은 도시가 아닌 마을이고 동네이다. <디어 교하>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역시 도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관한 이야기이다. 도시와 마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메뉴판과 이용요금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아닌, 주인과 손님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빛을 섞는 곳이 마을이다.

<디어 교하>에서 취재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이야기에 목마른 사람들이다. 표지 그림을 그려 준 화가들이 그렇고, 인터뷰를 응해 준 예술가들이 그렇다. 다들 이웃들에게 흔쾌히 다가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디어 교하>에서 취재했던 가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폐라는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가게들이다. 스스로가 판매하는 상품에 얹힌 이야기,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귀와 마음이 열려 있는 가게들이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웃들끼리 이어주는 역할, 어쩌면 <디어 교하>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다.

〈디어 교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이슈들을 끌어내어 공론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는 조직도 성글고, 철학적인 공유도 약하다. 하지만 이웃들 간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서로의 생각을 알아나가도록 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노력이고 성과라고 본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디어 교하〉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디어 교하〉가 끄집어 낸 이야기들은 〈디어 교하〉에서 끝나지 않고 동네 책방인 찜오책방을 통해 실제 공간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책방에서의 만남이 〈디어 교하〉의 기사로 실리기도 한다. 마을 공동체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찜오책방이 없었더라면 〈디어 교하〉는 자리잡기 힘들었을 것이다.

〈디어 교하〉는 오늘날 교하의 스냅샷으로서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했던 마을의 이야기들, 사진 자료 등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아카이브의 대상이기도 하다.

〈디어 교하〉는 지난 4년간 마을 잡지만 발간해 온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식과 활동을 통해 잡지라는 형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디테일에 접근해 보고자 노력해 왔다. 2018년도 가을호를 대신했던 〈교하 산책 지도〉와 2019년 가을호를 대신했던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집호를 통해 잡지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그러나 다루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2020년 가을에는 마을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풀어내는 보드게임을 만들기도 했다.

앞으로의 글을 통해 <디어 교하>가 걸어온 길,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관해 정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른 동네의 일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힘든 일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하는 이들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일 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가가야 한다.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로버트 카파Robert Capa의 지적은 사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02
Part 1. 마을 잡지, 마을을 기록하다	09
Part 2. 마을 잡지 〈디어 교하〉가 나오기까지	69
Part 3. 지도로 기록하는 교하 아카이브	83
Part 4. 우리 동네 아는 사람	99
Part 5. 마을 잡지 〈디어 교하〉 기록 생산	115
Part 6.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41



Part

1

마을 잡지, 마을을 기록하다

〈디어 교하〉는 어떻게 지역의 일상을
기록하나?

서상일*

* 호기심 많은 실존주의자. 자유기고가, 출판 편집자, 도서관 사서 등의 일을 했다. 우연히 동네 사람들과 함께 파주 교하의 마을 잡지 〈디어 교하〉를 만들고 편집장을 맡게 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디어 교하〉의 인기에 힘입어, 마을 잡지 인큐베이팅과 컨설팅도 하게 되었다. 교하에서 '쏘크라'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tmfprlansghk@hanmail.net

<디어 교하>는 언제 창간했고, 어떤 내용을 담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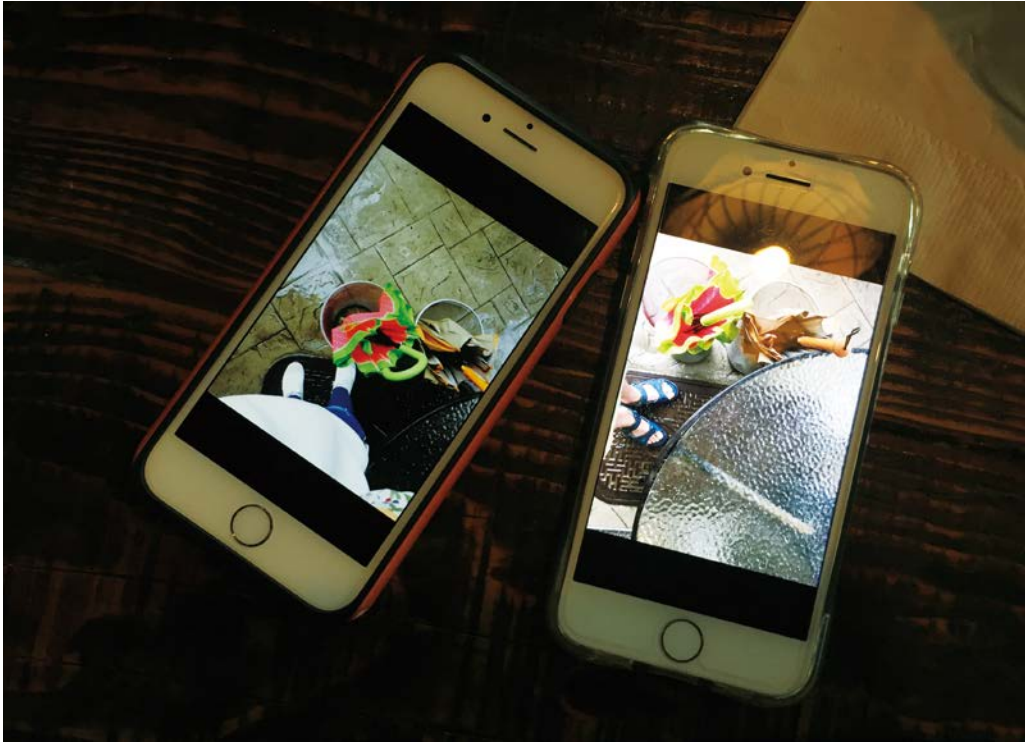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2017년 8월에 창간했다. 우리네 일상 삶의 이야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며 전하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편집과 디자인을 세련되게 풀어내고 싶었다. 마을 잡지니까 좀 엉성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 잡지도 애독자가 생기려면 꼴을 정성스럽게 잘 다듬어야 한다. 삶의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티 나지 않는 은근한 세련됨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했다.

<디어 교하>를 펼치면 독자를 맞이하는 첫 콘텐츠로 포토 에세이가 나온다. 창간호 포토 에세이에는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하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찍은 사진이 있다. 같은 대상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다르게 찍은 것이다. 이는 다양성과 차이를 담는 마을 잡지를 보여주겠다는, 마을을 보는 각기 다른 다양한 시선과 차이를 담겠다는 <디어 교하>의 자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도예공방을 소개하는 지면이 나온다. 골목에 간판도 없이 숨어 있는 문화공간이 많다. 이 배치 역시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 마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겠다는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편집에 마을 잡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지면에 대해서는 몰랐던 곳을 알게 되었고, 사진이 참 느낌 있다는 독자 반응이 있었다. 인터뷰에 응했던 도예가 분이 동네 가게에 들렀는데 가게 사장님이 마을 잡지에서 봤다며 반갑게 인사했다고 한다. 동네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서 ‘연예인병 생기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자 만든 협동조합 카페가 있어서 소개했다. 삶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었으며, 이에 대해서 ‘멋있다’ ‘재밌게 산다’ 등의 독자 반응이 있었다.

한편, 파주시에는 공공도서관이 많은데 특히 교하도서관이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2008년 교하도서관이 개관한 때부터 창간호가 나온 2017년 당시 9년째 일하고 있던 사서



Dear 교하,

장대비가 한창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이웃들이 '커피발전소' 앞 우산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빗물이 칠랑거리는 바닥을 바라본 사람도 있고,
동그란 탁자의 빗물 같은 무늬를 바라본 사람도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진 속 발들처럼, 우리가 당신이라는 공간 안에 서 있다는 것.
또 가끔은 함께 걷기도 뛰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랍니다.
어때요, 함께 가보지 않을까요?

를 인터뷰했다. 교하도서관의 산 역사와 같은 사람인데, 덕분에 교하도서관이 어떻게 개관 준비를 했는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생생한 지난 이야기가 담기게 되었다. 특히, 지자체장의 업적이나 관의 성과 또는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이 아닌,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지역 주민의 시선에서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반가운 반응이 있었다.

이 외,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인 ‘마당’을 소개하는 글도 있었다. 공간 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마을 잡지를 통해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디어 교하>가 전하는 이야기가 마을에서 또다른 새로운 인연과 이야기를 낳으며 자체적으로 번식해 갔는데, 잡지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웠다. 그런데 무엇보다 창간호에서 화제의 주인공은 개였다.



도예물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 주는 '도예공간 작가의 비언설 언타일'

도예,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매력을 느끼다



한때 수백 도예품을 둘러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이 낙하해하는 느낌이 들다. 특히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 그 음식을 직접한 그릇에 요리하는 재미는 참으로 만족스럽다.

온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예가가 만든 개성 있는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싶을 때,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취미를 하려고

할 때, 또는 직접하게 있을 수 있는 디자인 오브제를 만들 때, 우리는 도예활동을 찾는다.

6년 전 소위 소문 없이 한평생 주방 일만 하던 아내가 저지 않은 도예를 병행하게 되었다. 취미는 두말이안하듯만 맞은편이다. 건물을 내릴 때도 없어서, 한때는 도예를 하고 그날 지나가기가 했다. 그러나 언제 들어와 보면, 다른 사람이 될까 한다.

도예의 매력에 눈을 뜨면서, 우리네 삶에 조금 더 풍채를 줄 수 있다. 도예공간 작가의 비언설 언타일을 찾아가서 도예의 매력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도예품을 만들고 있는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도예간의 매력적인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함의 조화

먼저, 그에게 도예 작업의 매력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박 도예가는 이렇게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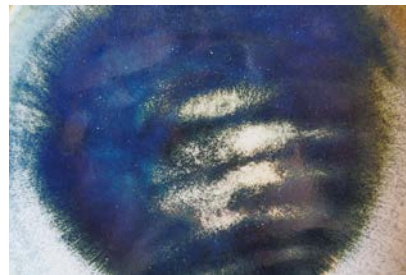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그런 점이 매력입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건, 유약을 바르고 물줄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유약이 물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그게 정말 매력적인데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결과를 예측하지 할 수 없거든요. 도예는 물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매력입니다. 그것이 흥미로워서, 지금까지 하게 되네요.”

도예를 직접 할 때 보지 않은 사람은 한해 유약을 받아 1000도 가 넘는 열기에서 남으면 흰색 도자기가 나오고, 한해 유약을 바르면 한해 도자기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도예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것만을 만드는 과정. 예측과는 다르다. 도예의 유약은 일차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같은 유약을 해도 가마에서 나온 제품이 차이가 있다. 같은 가마에서 나온 것들조차, 세심하게 살펴보면 각기 차이가 난다. 물 속에서 유약의 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어보았다.

“유약은 유약을 해도 물줄 때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불다거나 습해진다거나 이런 유약의 색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변화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일하는 것을 할수록 재미난, 유약을 바르고 물줄 때 그 유약은 그날 날리는 수백에 달합니다. 유약의 색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그 결과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내 손줄 하나 바뀌고, 그걸 인간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마에서 일하는 예상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재미있어요.”

물줄 때는 동안 일어나는 주위의 변화가 도예물에 담기게 된다. 상상해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겼을지도 모르니, 도예는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함의 조화가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박 도예가는 바로 그게 매력이라고 말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

마을 잡지 <디어 교하> 출간 직후 동네 사람들의 주된 첫 반응은 ‘신기하다!’는 거였다. 평소에 보던 동네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중앙 언론이나 주류 매체에서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 잡지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에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인다.

시간이 조금 지나 이어지는 반응은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였다. 마을 잡지의 특성상 주변 이웃의 삶을 인정하고, 일상을 사는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덕분에 삶에 위로가 되고 자존감을 높이게 된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마을의 여러 정보가 맛깔나게 버무려져 있다는 점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알고 보니, 주변에 관심 가지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척박한 삶에 위로가 되고 호응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다.

창간호에 후기로 실은 란박채란 작가의 글은 이러한 점을 잘 짚었다.

“여기 정말 멋진 사람들, 신기한 동네가 있다. 어쩌면, 이교하만의 매력은 아닐 것이다.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이처럼 빛나고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어쩌다 보니 나는 이 반짝거림을 교하에서 먼저 발견했다. 그래서 교하에 살면서도 아직 교하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 당신, 그리고 교하에는 살지 않지만 웬지 궁금한 당신, 모두를 이 책으로 초대한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반짝거림을 발견하길 기도하면서.”

..<디어 교하> 창간호, 2017년 8월, 38쪽

큰 판형을 선택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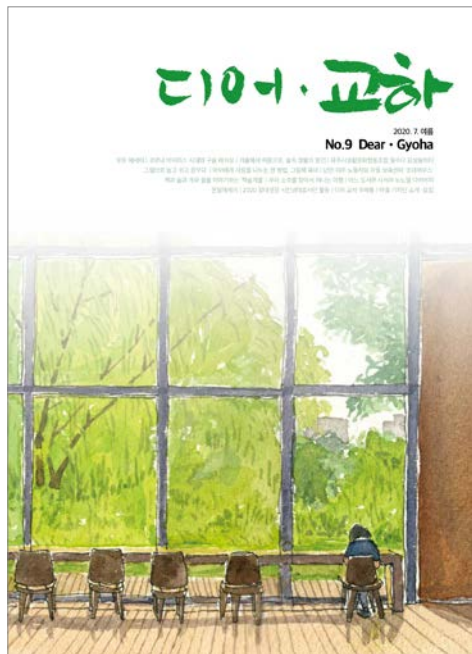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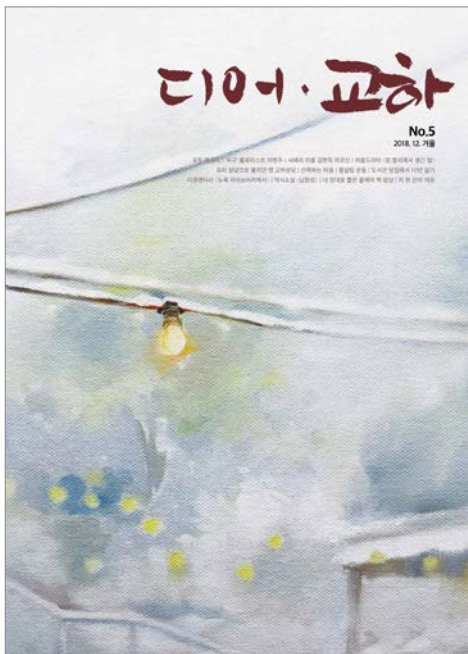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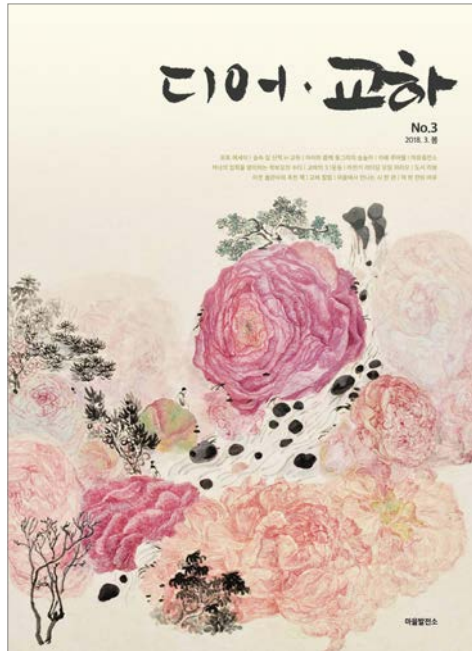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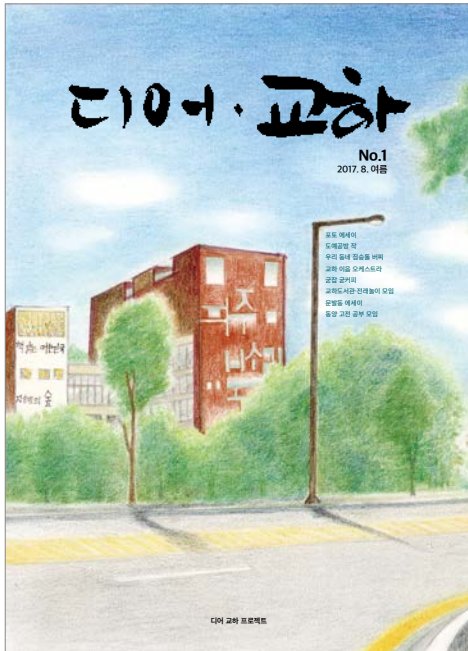
<디어 교하>에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많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큰 판형에 눈길을 끄는 사진들이 시원하게 들어가 있다. 잡지 판형의 크기는 A4보다도 더 크다. 가로 약 23센티미터, 세로 약 32센티미터다.

사진을 부차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주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사진이 돋보일 수 있는 이런 큰 판형을 선택했다. 그저 보기 좋고 예쁜 사진이 아니라, 이왕이면 삶의 진정성을 담고자 했다. 그 사진들은 너무 깔끔하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다. 일반 주민들이 찍은 사진에서 단정함과 진정성이 느껴지길 바랐다. 그리고 판형이 크다 보니까 쪽수가 많지 않아도 들어가는 내용이 보기보다 많다.

창간호부터 계속 같은 판형이다. 창간호를 준비할 때 당시 참여자 분들과 함께 결정했다. 우리 모임에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모두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에 판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북 디자이너가 시안을 만들어 와서 앞에 두고 함께 보면서 결정했다. 디자이너가 처음 시안을 꺼냈을 때,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나왔던 일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우리끼리 예쁘다고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었다. 마을 잡지 출간을 앞두고 다들 들떠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마을 잡지에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표지에서 제목은 무엇보다 눈에 띄기 마련이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에서 ‘디어 교하’라는 제목의 캘리그래피 **손글씨**는 한 마을 주민이 직접 한 것이다. 손글씨를 근사하게 쓰는 마을 이웃인 ‘커피발전소 in 교하’라는 카페의 사장님이다. 카페 사장님이 우리의 지지자였고, 그 카페가 다양한 마을 활동의 근거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여간 마을에서 ‘빨셈’이라는 별명으로



<디어 교하> 표지. <디어 교하>는 동네에서 인연이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표지에 사용한다.

부르는 송성근 사장님께 캘리그래피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응해 주었다. 붓으로 여러 차례 썼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골랐다. 제목 캘리그래피는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대가를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기꺼이 봉사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 이웃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만든 마을 잡지’라는 의식이 생긴다. 마을 잡지의 성공 여부는 폭넓은 주민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한 매 호마다 표지 그림도 동네 이웃에게 부탁한다. 교하에 사는 화가 분들께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렸다. 모두 기꺼이 그림을 그려서 주겠다고 했다.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주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그린 그림 몇 개를 제시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고르는 경우도 있었다. 표지 그림을 제공해 주신 분들은 장일순 화가, 백진숙 화가, 라일라 화가, 박재준 일러스트레이터, 이윤주 **그림 공방 자기만의 방**, 신영 **문화 공간 스케치+북**... 등 마을의 다양한 화가 분들이 함께해 주었다.

표지는 사람의 얼굴과 같아서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표지 그림 덕분에 마을 잡지의 수준이 높다는 칭찬을 듣고 있다. 그림을 제공해 주신 화가 분들께 감사하다. 그런데 화가 분들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드리지는 못했다.

이를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주민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분께 갑자기 그림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다. 이미 교하에 다양한 주민 활동 또는 마을 만들기 활동들이 있는데, 마을의 여러 활동에서 이미 이런저런 인연이 있고 마을 잡지 만들기 활동에 공감하는 분들께 부탁을 드린다.

게다가 이는 마을 내 ‘선물 경제’의 회복과도 관계가 있다. 마을 잡지로서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다.

마을 잡지 운동은 삶의 대안을 만드는 운동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는 ‘시장 경제’다. 시장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경제다. 그런데 시장 경제가 지배적으로 된 건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경제가 돌아갔나 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경제였다. 증여라고도 한다. 유명한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보면, 선물 경제가 단순한 게 아니고 인류 사회에 광범위하게 있었으며 바다를 건너 이루어지는 교역도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잘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선물 경제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지금은 약해지기는 했지만,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준다. 이를테면 신입생들은 선물을 받는 거다. 그런데 선물에는 의무가 있다.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받은 것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그렇다고 얻어먹은 선배에게 베풀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선배가 되었을 때 신입생에게 베풀다. 그 신입생이 선배가 되면 다시 후배에게 베풀고… 순환이 일어난다.

결혼식 축의금도 선물 경제의 흔적이다. 돈을 주는데 마치 돈이 아닌 것처럼 봉투에 넣어서 준다. 사실 돈을 그냥 주나 봉투에 넣어서 가려서 주나 다 같은 돈이다. 그런데 돈을 그냥 주면 화를 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보통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재산 이전^{증여}이 일어난다.

선물 경제와 마을 잡지가 어떤 관계냐고? 선물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봉사와 후원도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마음속에 언제나 누구에게든 갚아야 한다는 다짐 내지는 의무가 생긴다.

이웃 관계가 살아 있는 동네에서도 선물 경제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1로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선물이 넓게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관계가 된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발행되고 배포되고 유지되고 있다. 화가에게 표지 그림을 선물로 받고, 마을 기자단에게 글과 사진을 선물로 받으며, 독자에게 후원금을 선물로 받는다.

어떻게 갇아야 할까? 좋은 마을 잡지를 만들어서 동네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마을의 기록을 발굴해 자부심을 불어넣는 등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다. 잡지 편집과 디자인도 봉사로 하고, 마을 잡지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선물 경제로 돌아가고, 선물 경제가 더 넓게 작동하는 마을을 꿈꾼다. 이렇듯 마을 잡지 운동은 일종의 대안 운동이기도 하다.

물론,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선물 경제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남아 있다.

마을 기자단은 어떤 이들인가?

2017년 박채란, 김지하 두 명의 예술가가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으로 ‘디어 교하’ 프로젝트를 교하도서관에서 진행했다. 이를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총 8번의 인터뷰 워크숍과 사진 워크숍이 있었다. 단지 사진 기술이나 인터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깨우는 흥미로운 워크숍이었다. 흩어져 버리기 쉬운 작은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사진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사진과 인터뷰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자극했다. 꽤나 예술적인 워크숍이었다.

이후 이 워크숍에 함께한 이들이 회의를 통해 마을 잡지를 창간하기로 하고, 이들이 그대로 마을 기자단이 되었다. 창간호 때 마을 기자단이 가나단 순으로 란박채란, 시시김지하, 쏘크라서상일, 쭈쭈최수인, 이마담이정은, 프리인에박인애다.

이렇게 기자단이 구성된 것에 대해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으며, <디어 교하>의 뿌리가 형성되는 사건이 이미 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디어 교하’ 프로젝트가 벌어지기 전 해인 2016년에 이미 박채란, 김지하 두 명의 예술가가 주목할 만한 예술적 실천을 했다. 교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하, 다가

가다>라는 동네 사람 ‘사진+인터뷰집’을 냈다. 신도시가 형성되는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삶을 담백하게 담았다. 예술적인 민간 아카이브로, 자신의 삶과 마을의 기억을 구성하는 장소 기반의 주체 형성을 자극했다.

이때 인터뷰한 이들 중 일부가 다음해에 다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마을 기자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하, 다가가다>라는 예술적 실천은 마을 잡지 <디어 교하>의 전신 또는 뿌리와 같다. <교하, 다가가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이 확장된 마을 잡지 <디어 교하>가 가능할 수 있었다.

어쨌든, 2017년에도 그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 사진+인터뷰 책자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그럴 거라면 이왕에 마을 잡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참여자 중에는 우연히 편집자서상일과 디자이너여현미가 모두 있었으니까, 조건도 무척 좋았다. 다행히 워크숍 참여자들이 다들 좋다고 해서, 워크숍에 함께한 이들이 마을 잡지를 창간하고 그대로 마을 기자단이 된 것이었다.

마을 잡지를 창간할 때 마을 기자단이 대부분 30대 40대 여성이었다. 나 쏘크라서상일만 홀로 40대 남성이었다. 대부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이들이었다. 직업을 따지자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었다.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참여가 어려웠다. 주말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과 함께해야 하니, 주중 평일 낮에 모임을 하고 있다. 어쨌든 창간 때 함께했던 이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모임에 늘 참여하는 건 아니고, 사정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참여하고 그런다.

마을 잡지를 시작할 때 참여자가 30대 40대 여성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 잡지의 타깃 독자도 30대 40대 여성으로 잡았다. 즉 그분들에게 통할 수 있는 내용과 감성으로 잡지를 만들었다. 원고 배치에도 그런 점을 신경 썼다. 어떤 잡지든 타깃 독자를 잡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니 말이다.

<디어 교하>는 초기에 30대 40대 여성을 주된 독자로 확보하면서 잡지를 지속할 수 있는 기

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 역시 출판계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력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시작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임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이유는?

<디어 교하>가 호응을 얻으면서 기자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고료 같은 것은 줄 수 없는
데도,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온다. 기존에 아무런 인연도 없다가 어디선가 <디
어 교하>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도 생기고 있다.

<디어 교하>에 한 번이라도 기사를 실은 적이 있는 이를 ‘<디어 교하>의 마을 기자’라고 한다
면, 그 숫자는 꽤 된다. 창간 멤버^{8명} 외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분들이 수련화^{김미선}, 이지작가<sup>이
동일</sup>, 동글이^{이동구}, 슈룹^{김동희}, 윤슬^{윤지원}, 이콜^{전은지}, 뽀샘^{송성근}, 마음^{허심}, 흑진주^{박경희}, 손수
리노^{이재정}, 여행자^{하효남}, 감돌^{김정현}, 곰토미^{이해범}, 시월나비^{정덕현}, 차미짱^{니카미 유리}에, 코멘터
리^{이한별}, 배짱이^{박경수}, 뭉하^{최효은}... 분들이 있다. 이 중에는 마을 잡지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
여하는 이도 있고, 사정이 될 때 또는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글과 사진으로 함께한
이도 있다.

예를 들어, 수련화^{김미선}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경우다. 교하로 이사 와서
<디어 교하> 2호를 보고서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3호와 4호, 5호까지 즐겁게 함께했다.
그런데 멀리 이사를 가게 되서 바람처럼 사라졌다.

기자단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모임을 하고 있
어서 <디어 교하>가 매호 나올 때마다 참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냥 열 명 정도라고 말한다.
한 호에 열 명 가까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기자단 모임은 바람과 같은 ‘유동성’과 ‘개방성’이 특징이다. 마을 잡지의 내용을 풍
성하게 하는 데에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네트워크형’이라고 부른다. 마을에

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마을 기자단이 궁극적으로는 각기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혼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양한 소재, 각기 다른 시각, 다채로운 내용으로 풍성한 마을 기록이 생산되는 데 유리하다.

〈디어 교하〉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 늘 기자단 모집을 알린다. “〈디어 교하〉에는 동네 사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쏘크라가 제안했고 다른 이들도 동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편집장 쏘크라가 〈오마이뉴스〉의 ‘뉴스 게릴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2000년에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론인 〈오마이뉴스〉가 탄생했다. 이 새로운 언론은 개방성, 유동성, 현장성, 생활밀착형이 큰 장점이었다. 경험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는지 잘 알고 있던 쏘크라는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중에서 좋은 점을 가져오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긍정적인 경험을 투영해 ‘모든 마을 주민은 마을 기자다’라는 모토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

마을 잡지에 왜 별명을 사용하는가?

〈디어 교하〉에서 마을 기자는 모두 별명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글쓴이 이름이 ‘쭈쭈’, ‘시시’, ‘그레이스’ 등으로 나간다. 어떤 이는 신비주의 전략이냐고 묻는다. 그런데… 뭐, 신비주의가 통하지 않는 평범한 이웃들이다. 우리는 기자단 모임을 할 때도 서로 별명으로 부르고, 잡지에도 별명을 사용한다. 나아가 이런 별명은 동네에서 모임으로 만나거나 개인으로 만날 때에도 사용한다.

별명을 쓰는 것이 마을 잡지가 더 재미있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는 한다. 그런데 그런 재미 때문에 별명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관계의 평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한다.

2017년 창간호 편집 직전에 제안이 있었다. 멋진 디자인을 해주는 다솜이 우리가 별명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분이 서울 성미산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다가 파주 교하로 왔다. 성미산마을에서 활동할 때에도 별명을 쓰는 게 장점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자는 거였다. 다들 좋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별명을 만들었다. 별명을 만들면서 우리끼리 웃음꽃이 만발했다. 지금도 기자단에 새로 참여하는 분은 별명부터 만든다.

참고로, 나는 대학생 때 별명이 소크라테스였다. 짐작이 가듯이, 진지하기만 한 ‘노잼’^{No+재미} 캐릭터였다.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따지고 들고…. 나는 소크라테스를 변형해서 별명을 ‘쑤크라’로 했다.

별명을 사용하는 것은 장점이 많다. 관계에서 작동하는 미시권력을 해체한다. 한국 사회는 나이, 성별, 출신 학교, 직업 등에 따라 미시권력이 억압적으로 작동하곤 한다.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멀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관계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꼰대 방지용’으로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출신 학교, 나이, 직업 등에 대해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모른다. 그저 즐겁게 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평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 잡지의 활력이 나온다.

디어교하 기자단 소개·모집



체포, 봄날에 많이 웃어버린 죄! 디어교하 기자단

2018년 봄호에 새롭게 참여한 수련화, 이지작가님께 감사합니다.
 <<디어교하>>에 함께한 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디어교하>>는 동네에서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디어교하>>는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글을 실습니다.
 <<디어교하>>는 교하가 책 읽는 이가 많은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디어교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동네 담론을 생산합니다.
 <<디어교하>>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아카이빙을 지향합니다.
 <<디어교하>>에는 동네 사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별명을 사용하는 마을 기자단. <디어교하> 3호 47쪽.

어떤 소재들을 다루나?

마을 잡지 <디어 교하>를 펼치면 제일 앞에 포토 에세이가 나온다. 2호의 경우, 집 앞의 버스 정류장을 고즈넉한 분위기의 흑백 사진으로 담았다. 파주 교하는 신도시인데도 시골 느낌이 나는 풍경이 남아 있다. 그저 지나치던 버스 정류장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포토 에세이였다. 그러니까, 이렇듯 평소에 눈길 주지 않던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신고자 한다.

계속해서 2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골목에 자리 잡은 특색 있는 의상실과 개인이 골목에 마련한 동네 미술관을 소개했다. 골목에 숨어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서 알리고자 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김치를 담그는 이야기도 실었다. 함께 모여서 김장하는 모습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인상을 받는다는 평을 얻었다. 동네 청소년들이 북적북적한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의 팀장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왜 교하의 청소년문화의집은 다른 곳과 다르게 청소년들의 눈이 반짝거리는지 알 수 있었다. 철학이 남다른 팀장이 청소년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어 교하>의 기본 틀과 특색은 3호까지 진행하면서 거의 완성되었다. 그러니 3호 내용도 살펴보자. 교하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새로 온 분들이 많다. 다들 낯선 곳에서 어떻게 정을 붙이게 되었을까? 대체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교하도서관과 동네 서점을 비롯한 책 문화, 심학산·산남 습지·공릉천을 비롯한 자연, 그리고 숲속 산책길이다. 실제로, 산책길이 나쁘지 않다. 자연 숲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을 이름도 숲속길마을이다. 낯선 신도시로 이사 와서 두려웠는데 숲속 산책길 덕분에 교하에서 마음을 기댔다는 내용의 에세이가 3호의 첫 글이었다. 이주민이 대다수인 이곳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서 마을의 숲놀이 활동가를 인터뷰한 글을 실었다. 아이들과 함께 숲놀이 하는 모습이 정겹다. 뛰어난 건축으로 유명한 카페 루버월도 소개했다. 참고로, 루버월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축상이라 할 수 있는 한국건축가협회상 2016년 수상작이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



시간이 멈춰버린 곳.
눈을 뜨면 새롭게 길이 나고,
어제까지 있던 언덕이 사라지는 신도시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겨울에 더욱 포근한 장소,
고개를 돌리면 토토로가 서 있을 것 같은
9단지 맞은편 버스 정류장이다.

〈디어 교하〉 2호 3쪽 포토 에세이

외 건축 잡지에도 소개가 될 정도다. 골목에서 골조가 올라갈 때부터 눈길을 끄는 건물이었다. 대체 저 건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과연 누가 들어오는지 궁금했었다. 예술에 조예가 있고 스스로 ‘몽상가’라고 부르는 분이 주거를 겸한 카페를 냈다. 덕분에 이 동네에서 건축의 가치에 주목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는 모두 가사·육아·공부·노동 등에 지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 에너지를 충전할 곳이 없을까 찾게 된다. 관련해서 ‘여유 충전소’라는 모임을 소개했다. 한 달에 한 번 셰프가 제공하는 맛있는 요리를 즐기면서 좋은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는 동네 사람들의 자발적인 파티다. 오늘 하루 즐기고 우리 모두 힘내서 한 달을 또 살아가자, 라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신도시의 삶, 현대인의 삶의 한 단면이 보인다.

그리고 동네 자전거 모임인 ‘파라오’의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도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공릉천을 달리는 상쾌한 기분이 전달된다. 이 동네에서 사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디어 교하>를 보면, 이 동네에서 다닐 만한 곳과 모임 등에 대한 정보도 쏙쏙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3호에서 내용적으로 몇 가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삶의 고민 나누기, 교하의 역사 알아보기가 그것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는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자 육아와 아동 교육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처음부터 학부모는 아니었어’라는 기사다. 오늘날 부모의 고민이 담긴 글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학부모끼리 나누는 이야기라 더 뭉클하게 다가온다.

역사 자료를 찾아서 교하의 3.1운동을 소개한 글도 있다. 파주 최초의 3.1운동이 교하초등학교 교하공립보통학교에서 있었다. 당시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타오를 때라서 그에 견주어서 교하의 3.1운동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잊혀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하초등학교에 교하 3.1운동 기념비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교하의 원주민 분들도 다들 처음 알았다면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또 교하초등학교 동창회에도 이 글이 알려졌다고 한다.

마침 다음해인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다. 3.1운동 기념비 세우기 좋은 때가 아니겠는

가. 실제로 그 해에 교하초등학교에 교하 3.1운동 기념비가 섰다. 백 년 만에 이루어진 지역 역사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는 촛불항쟁 이후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시장, 시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디어 교하>도 마을에서 이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해진다.

<디어 교하>에서 교하의 지난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글이었고, 이후로도 지역 역사를 다룬 글을 종종 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심 독자가 파악되기도 한다. <디어 교하> 8호에 교하의 역사를 돌아보는 칼럼 ‘그 넓은 교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실었는데, 독자의 응원 전화가 오기도 했다. 어쨌든 지역사를 오늘날 공감할 수 있게 다루는 것은 독자를 넓히는 데에도 효과가 있고, 뿌리 있는 삶과 공동체를 가꾸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을 잡지를 다양한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왕이면 세대별 균형이 갖추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대 청춘의 삶에 접근해 봤다. 교하에 대안 예술대학이 있다. 파티PaTI,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라는. 우리나라 타이포графи를 개척한 유명 디자이너인 안상수 선생님이 연 대학이다. 이 학교의 몇 학생들이 모여서 실험적인 작업 결과물을 모아서 배포했다. ‘멋멋’이라고. 서울 홍대앞과 파주 교하의 카페와 책방 등에 배포한다. 회화, 사진, 설치 미술 등의 작업을 담고 있다. 예전에 홍대앞에서나 볼 수 있던 실험 예술을 교하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하는 생각에 주동 학생을 인터뷰해서 2호에 소개했다.

이렇듯 <디어 교하>는 교하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을 가리지 않고 두루 다루고자 한다. 교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장소, 모임, 행사, 자연, 문화, 역사 등을 두루두루. <디어 교하>는 폭넓게 열려 있다. 다만 현재 한 가지 피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정치다.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정치 영역까지 다루게 될 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는가.

〈디어 교하〉에 실린 글의 형식은?

〈디어 교하〉 창간호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뷰 기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뷰 워크숍과 사진 워크숍을 진행하며 모인 기자단이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창간호에도 인터뷰 기사 외에 포토 에세이, 포토 스케치, 에세이 글이 있었다.

2호부터 콘텐츠의 형식이 더 다양해졌다. 시험을 망친 딸에게 아빠가 보내는 편지도 실었다. 아는 동네 사람에게 딸이 펄펄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딸이 시험을 망쳤다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단다. 그런 딸을 위해서 직접 손 편지를 써서 줬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편지를 마을 잡지에 신자고 제안했다. 편지를 받아서 이름과 날짜만 흐릿하게 처리해서 익명으로 잡지에 실었다. 그 자체로 우리네 일상 삶의 한 모습이 담기게 되었다.

2호에서 처음으로 칼럼도 실었다. 평소에 걸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가 가득한 길에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런 길은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다룬 칼럼을 썼다. 만남과 놀이의 장소로서 골목의 의미, 현 주차장법의 문제, 공동 주차 타워 제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글과 함께 차로 가득한 우리나라 골목과 아이들이 노는 유럽의 골목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마을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덕분에인지 〈디어 교하〉를 ‘교하 정론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겼다.

시간이 갈수록 글의 형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디어 교하〉 4호에는 교하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 나무를 소개하기 위해 나무와 이야기 나누는 가상 인터뷰를 실었고, 〈디어 교하〉 8호에는 파주를 배경으로 한 독립 영화 〈니나 내나〉를 다룬 수준 높은 평론도 실었다. 그간 교하라는 장소에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했는데, 굳이 형식을 나눠보자면… 인터뷰, 글 에세이, 포토 에세이, 포토 스케치, 편지, 정보, 칼럼, 평론, 가상 인터뷰 등이 있다. 글의 형식은 앞으로도 더 다채로워질 것이다. 〈디어 교하〉는 열려 있으니까.

〈디어 교하〉 발간 주기는?

계절마다 나오는 계간지를 표방한다.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을 내자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때도 있기는 하다.

처음부터 계간지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첫해에는 두 번 나왔다. 2017년 8월에 창간호가 나왔고, 같은 해 12월에 2호가 나왔다. 이때는 마을 잡지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정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디어 교하〉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았고 잡지를 인쇄할 수 있을 만큼 후원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해인 2018년에도 마을 잡지를 계속하자고 해서 모였다. 2018년 1월 모임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자고 뜻을 모았고 발간 주기를 어떻게 할지 정했다. 나는 일 년에 2번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지 않은 일정이라 생각했다. 왜냐면 다들 생계를 위해 자기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을 잡지 일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들 적극적으로 3개월에 1번씩 내자고 했다. 계간지를 하자는 거였다. 다들 너무 적극적이라서 놀랐다. 한편, 편집자와 디자이너는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부담이 있기는 하다.

계간지로 하자고 정한 2018년에는 정말 시기에 맞춰 4번 나왔다. 3월에 봄호인 3호를 냈고, 7월에 여름호인 4호를 냈으며, 10월에는 마을 잡지의 특별호라 할 수 있는 〈교하 산책 지도〉를 냈다. 그리고 12월에 겨울호인 5호를 냈다. 참 열정이 넘치는 때였다.

그런데 다음해인 2019년에는 출간 시기가 좀 흐트러졌다. 2019년 4월에 봄호인 6호를 냈고, 7월에 여름호인 7호를 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 교하 주민 구술생애사 작업의 결과물인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을 출간했다. 겨울호는 다음해인 2020년 1월에 나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봄호를 낼 수 없었다.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주춤한 때가 있었기에 다행히 여름호는 7월에 낼 수 있었다.

기획 회의는 어떻게 하나?

보통 2주에 1번씩 모여 기사단 회의를 한다. 새 호를 시작할 때, 기획 회의를 한다. 참여할 여건이 되는 이들이 모여서 각자 이번 호에 무엇을 할지 이야기한다.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또는 최근에 동네에서 알고 싶어진 것을 다루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면, ‘마치 답변이 정해진 것처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넘쳐난다. 물론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도 부담은 전혀 없다. 회의라고는 하지만 정해진 틀도 없고, 수다에 가깝다. 사실, 우리끼리는 회의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냥 모여서 얘기해요, 한다. 이 얘기 저 얘기 산만하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수다를 떨다 보면, 신기하게도 다들 저절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정해진다.

기획 회의 할 때는 늘 유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기대된다.” “궁금하다.” “카페 전문 인터뷰어가 되겠다.” “동네에서 유명인사 되는 거 아니야.” “동물에 이어 이번엔 식물로 갔네.” “벌써 취재했네.” “새로운 걸 알게 되겠는데.” 떠들썩하고 노는 분위기다. ‘위 위’ 하면서 들뜬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진정시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노잼’ 캐릭터인 쏘크라에게 딱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기획 회의할 때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대체로 현장성이 있고, 생활밀착형이다. 마을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일, 길에서 보거나 마주친 것 등이다. 마을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을 다루기도 하고, 알고 싶은 사람이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인터뷰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삶의 반경 안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수준 높은 영화관을 세밀하게 취재해서 소개하고, 생활에 유용한 철물점인데 사장님이 매우 친절하고 그곳에만 가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면 그간 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경험한 것과 인터뷰한 내용을 더해서 소개한다. 동네 자전거 동아리에서 함께 자전거 타고 다닌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길고양이를 입양하게 되면 그 이야기도 쓴다. 우연히 새로 생

긴 동네 카페에 갔는데 살펴보니 다달이 미술 전시도 하고 문화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것을 보면, 즉석에서 사전 인터뷰를 한다. 자주 가던 ‘착한’ 식당이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면 마지막 인사 글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렇게 마을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여러 일들이 담기게 된다. 마을에서 특정 공간의 역사와 인연도 담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저절로 <디어 교하>에서 다루는 내용과 형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졌다. 개성이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결과다.

신기한 것은… 이것이 선명한 목적의식과 특정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해’ 하면서 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즐기면서 하는 일이고, 노는 것에 가깝다. 그런데 돌아보니, 마을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기자단 모임이 즐거운 이유는?

기자단 모임이 이렇게 즐거운 이유는 이 일이 해방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내가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발표하다니. 게다가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베푸는 거라서 더 좋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하는 즐거움이다.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이나 틀 또는 특정 신념이나 이른바 전문성 등으로 재단하면서 ‘잘못 되었다’ ‘아니다’라며 억누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드러내지 못했던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들어주고 인정하며 펼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깨우치고 발전시키게 된다. 이건 교육학의 고전으로 통하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역할로

연결되니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감 올라가고 기쁘다. 각자도생하는 개인을 위한 삶을 살 때와는 다르다.

기획 회의 이후 진행은 어떻게 하나?

각자 일종의 사전 취재를 한다. 바로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기획 회의 2주 뒤에 다시 만나서 점검한다.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잘 진행되면 또 신나서 떠들썩하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푼다. 때로 인터뷰 질문을 같이 제안하기도 하고, 처음에 접촉해보려고 했던 분이 만나기 어려우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취재를 하기는 했는데,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아 보이면 서로 아이디어도 준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한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일이 다 풀린다.

또 2주 뒤에, 원고 마감하고 다시 모인다. 원고를 검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다. 마을 잡지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어떤 사진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주고, 진행 과정과 취지도 들어본다. 편집 디자인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고 마감일을 정하기는 하는데... 원고가 늘 들쭉날쭉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다시 2주 뒤에 모여서 다시 점검하는 식으로 한다.

이후에는 메시지를 어떻게 돋보이게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교정교열을 비롯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제목도 뽑고 사진을 추리는 과정이 있다. 기사마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면, 더 다듬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는 편집을 맡은 쏘크라가 한다. 또다시 2주 뒤에 편집본을 올리고 기사단이 각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디자이너 다솜의 솜씨가 발휘될 시간이다. 역시 2주 뒤에 디자이너가 모임에 시안을 가지고 온다. 또 한바탕 떠들썩한 시간이다. 근사하게 편집 디자인된 시안을 보고 들뜬다. 이후 2차 교정교열과 편집 디자인, 3차 교정교열과 편집 디자인을 거치며 계속 다듬어

완성도를 높인다.

출간 전에 취재하거나 인터뷰한 분께 혹시 잘못 받아 적거나 다르게 전달한 것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지킨다. 즉 편집 디자인 한 파일을 보내서 마지막 확인을 받는다. 이때 혹시 취재한 곳이나 인터뷰한 분이 바꾸자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바꾸고 다듬는다. 휴우... 이렇게 편집 디자인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잡지에 실린 많은 사진들은 다 기자단이 찍은 건가?

〈디어 교하〉를 보고서 사진이 보기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기자단에는 사진을 잘 찍는 분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원고 작성 이후에는 사진을 찍으러 다시 방문하거나 한 번 더 현장 답사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여러 번 찍은 사진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한 사진은 편집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다시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예를 들어, 교하 주변에 공릉천이 있는데 관련 글에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마을 사람 중에 누가 공릉천 사진을 찍어온 분이 있는지 수소문한다. 대체로 마을 기자단과 연결된 사람 중에 필요한 사진을 찍어온 분이 있었다. 연락해서 사진을 받는다. 이 역시 대가를 지불해 드리지는 못하고 ‘선물’이다. 대부분 기꺼이 사진을 보내준다.

때로는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옛 교하읍 다올리에 교하성당이라고 있었다. 김영섭 건축가가 설계했고 예술 작품과 다름없는 가치 있는 건물이었다. 그런데 신도시 재개발로 허물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은 정말 무식하다. 어쨌든 이에 관련한 글을 쓰는데, 주변에 옛 교하성당 사진이 있는 분이 없었다.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저기 찾다가 결국 김영섭 건축가에게 연락이 닿았다.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디어 교하〉에 예쁘게 실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수소문하고 발품을 판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사진들

을 마을 기자단의 다솜 디자이너가 멋지게 살려 준다. 덕분에 그냥 두면 사라질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이미 사라진 곳의 사진을 찾아서 지면으로 전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의 협력은 어떻게?

마을 잡지를 만들려면 정말 많은 손길과 발품이 필요하다. 이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관심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모아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많은 일들은 동네 이웃이 모인 마을 기자단, 나아가 마을 잡지 만들기에 적극 공감하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현대 사회는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분야 전문성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도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요즘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들을 전문가라는 말 대신 ‘덕후’라고 부르기도 한다. 권위를 뺀 덕후라는 말이 더 괜찮은 것 같다. 하여간 마을을 둘러보면 주변에 덕후들이 숨어 있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그간 숨기고 있었던 역량을 일상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마을에서 펼치는 장을 제공한다. 일반인과 전문가 또는 덕후의 만남과 협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을 잡지 편집장의 역할은?

일단, 마을 잡지 편집장은 출판 편집자의 전문성이 있다면 좋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 잡지 편집장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연결하

고 그들의 능력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웃들의 숨어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서 빌리고 마을 잡지에서 빛나게 만들어 준다. 마을에서 마을 잡지라는 장을 통해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겠다.

모임 장소는 고정적인가?

지난 4년 동안 모이는 장소에 변화가 좀 있었다. 교하도서관에서 시작했다가, 동네 책방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현재 모임방이 딸린 동네 책방인 **점오책방** **발전소책방** **5협동조합**에서 모인다.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이 책방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일부 겹치기도 하고, 책방이 마을 잡지의 협력 파트너이자 든든한 지원군이다. 나아가 점오책방은 책과 관련한 모임이 있을 뿐만 아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 모임은 동네 책방인 점오책방에서 이루어진다.



나라 교하에서 다양한 마을 활동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곳에서 모임도 하고 있고, <디어 교하> 잡지가 나오면 이곳에서 받아서 배포하고 소량을 이곳에 보관한다.

<디어 교하>는 몇 부나 찍나?

1천부를 찍는다. 실제로는 1천 1백부 정도가 들어온다. 인쇄소에서 주문 부수보다 늘 1백부 정도 더 찍어서 준다. 고마운 일이다.

창간호는 7백부를 찍었다. 동네에서 어떤 반응일지 아직 알 수 없기에 적게 찍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금세 가져가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700부가 3일 만에 다 소진된 것으로 기억한다. 2쇄를 찍고 싶었으나 비용이 없었다. 이제 창간호는 기사단도 보기 어려워 희귀본으로 남게 되었다.

2호부터는 ‘아껴서’ 배포하고 있다. 많이 찍어서 널리 배포하고 싶지만…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찍을 수 없고, 계속 1천부를 찍고 있다.

어떤 곳에 배포하며, 그 과정에 에피소드가 있나?

새 호가 들어오면, 시간이 되는 이들이 모여서 배포하러 마을 곳곳을 다닌다. 마을 기사단이 직접 전달한다. 동네 빵집에 가서 빵도 사면서 이번에 나온 마을 잡지에 실린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도 한다. 대부분 관심 있게 설명을 듣는다. 주로 그런 곳에 배포한다.

일단, 교하도서관에 가장 많이 배포한다. 신도시에 있는 물푸레도서관, 가람도서관, 해솔도서관, 한빛도서관, 한울도서관, 그리고 파주중앙도서관에도 조금씩 배포한다. 도서관 외에는 마을의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식당, 빵집, 철물점 등에도 조금씩 배포한다. 새로 소개하는 곳에



〈디어 교하〉 창간호를 동네 카페에 배포하는 모습

도 직접 가져다 드린다. 30군데 넘게 다니는 듯한데, 한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니다. 마을 기자단이 여럿이니 나눠서 다닌다.

배포 과정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한다. 간혹 마을 잡지를 배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2018년 겨울에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스케치+북’이라는 문화공간에서 마을 잡지를 배포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마을 잡지를 들고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 생은 망원시장〉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망원시장 상인의 구술 생애사 인터뷰 책이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보니, 공저자 중 한 분인 정숙희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더욱 반가웠다. 다음 해인 2019년 여름에 〈이번 생은 망원시장〉에서 했던 구술 생애사 작업 경험을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마을 잡지 배포 과정은 마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을 잡지를 직접 전달하는 이유는?

마을 잡지를 만드는 데에도 발품을 많이 팔고, 배포하는 일에도 직접 발품을 판다. 발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 잡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도 좋은 점이 많다.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을 테다. 그렇지만 그러면 많은 우편물 가운데 하나로 묻혀 버린다.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만든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을 잡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새로운 호가 나오면 가방에 늘 몇 개씩 들고 다닌다. 만나는 사람 중에 마을 잡지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면 꺼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전달한다.

물론, 때로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간혹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분량을 뿌리자는 말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수고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일부러 고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한 권이라도 소중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마을 기록은 생산만큼이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활용되지 않으면 생산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마을 기록을 생산한 이유는 그것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유통되는 데 쓰이기 위해서이지 않은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마을 잡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만든다.

이것은 좋은 점이 또 있다. 마을 잡지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다. 새로 나온 호를 소개할 때 반응을 보면 어떤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도 있다. 예를 들어, 페이지를 넘길 때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부분과 관심 없다는 듯 바로 넘겨버리는 부분이 있다. 때로는 새로운 호를 전달하면서 지난 호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한다. 어떤 내용이 반응이 좋았는지, 마을에서 어떤 영향을 준 일이 있는지 등을 들어볼 수 있다. 그렇게 파악된 주민들의 반응과 영향을 다음 호에 반영한다.

이메일로 원고만 받기도 하나?

기자단 모임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간다. 즉 모여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식이다. 간혹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도 되냐고 문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메일로 원고만 받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관계 맺는 게 먼저다. 그래야 마을 잡지가 마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일은 그저 마을 잡지의 내용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을에서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정 주제를 정해 활동하기도 하나?

마을 기자단이 낸 <교하 산책 지도>와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이 특정 주제를 정해 활동한 결과물이다. 마을 잡지 특별호라고 보면 된다. 마을 잡지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해마다 가을에는 특별하게 한 주제를 잡고 그것에 집중해서 낸다.

마을 잡지를 하면서 마을 산책 지도를 만들자는 얘기가 종종 나왔다. 그렇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림 지도를 여러 장 그려야 하는데, 그건 화가에게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비용도 많이 줘야 하고, 그건 봉사로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마침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왔다. 2018년 봄, 교하동사무소에서 교하동장에게 마을 잡지 <디어 교하>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때 윤덕규 동장이 우리 마을 잡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후 동장이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르신들에게… 이곳에 신도시가 생기고 이주민이 대다수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위원이 거의 대부분 자연부락 어르신들이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와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을 서로에게 소개하고 연결해 주었다.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이 있으니 교하를 위해서 함께 작업을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사실, 돈 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가리는 편이다. 돈 대는 곳에서 때로 음흉한 계산이 깔려 있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접촉할 때 전적으로 우리의 자율성에 맡기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한다. 보통 돈 대는 곳에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간섭이 있곤 하는데, 이분들은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다. 실제로 교하동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섭은 별로 없었다. 다만, 거추장스러운 ‘의전’이 좀 있기는 했다.

어쨌든 일상, 자연, 역사, 쉽이라는 4가지 테마로 마을의 산책 코스를 개발했다. 아주 새로운 코스를 만든 것은 아니고, 평소 산책 다니던 경험을 반영해서 교하에서의 삶의 일상을 에세이와 그림 지도로 담았다. <교하 산책 지도>는 2018년 10월에 나왔고, 단순 정보 지도가 아니라 감성 에세이로 사람들에게 함께 동네 산책에 나서보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교하 산책 지도>를 좀더 유용하다고 받아들였다. 마을 기자단도 새로운 시도를 벌이고 이론 것에 스스로 뿌듯했다.

구술 생애사 인터뷰 작업은 어떻게 진행했나?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동네 사람 인터뷰로 시작했다. ‘<디어 교하> 프로젝트’ 워크숍을 이끈 박채란 작가가 구술 인터뷰에 자신만의 철학과 노하우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자단에 우리만의 인터뷰 노하우도 쌓이고 기자단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했으니, 2019년 초에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해보자고 기자단에 제안했다. 우리가 그간 했던 인터뷰 작업과 별로 다를 바 없고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된다고 ‘사기’를 쳤다. 어려운 거 없다고. 나중에 어려운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었다는 원성을 좀 듣기는 했다.

어쨌든 구술 생애사 작업이 쉬운 게 아니다. 품이 많이 들고, 채록하는 데 시간도 무척 오래 걸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이것은 주민들의 봉사와 후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했다. 선정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우리 동네 아는 사람〉 출간기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니, 그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던 분들께 연락을 드렸다. 먼저 우리나라 구술사를 개척해 오신 윤택림 교수님께 연락해서 강연회를 열었다. 참고로, 윤택림 교수님은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무척 흥미롭게 읽었다. ‘강추’하는 책이다. ‘지역민이 역사 기록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그리고 윤택림 교수님은 한국구술사학회에서 활동한다. 한국구술사학회에서는 〈구술사연구〉라는 학회지를 내는데, 재미있는 논문들이 꽤 있다.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에서 다 읽어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가는 논문 몇 개 봐도 좋을 테다.

이어서 〈이번 생은 망원 시장〉의 공저자 중 한 분인 정숙희 선생님께 연락해서 구술 생애사 작업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리고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서 마을 아카이빙을 한 ‘평화를품은 집 평화도서관’의 명연파 선생님과 파주중앙도서관 시민채록단으로 주요한 활동을 한 윤지미 선생님과도 마을 아카이빙과 구술 채록 작업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강연회는 마을 기자단에게 도움이 되었다. 해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은 기록 활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시민 아카이비스트 시민 기록가로서 성장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기자단이 각자 인터뷰를 했다. 동네 주민들이 같은 동네 주민을 인터뷰하는 일이라서, 라포 형성 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좋은 점이였다. 이미 동네에서 인연이 있는 분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하나를 정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하니, 기자단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도 좋았다.

구술 인터뷰의 주제는 교하 이주 동기와 이곳에서의 꿈이었다. 결과물은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아 172쪽의 책으로 냈다^{2019년 12월}. 정부의 통계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교하로 이주한 이들의 행위 동기를 알 수 있어 소중한 결과물이다. 이 작업은 윤택림 교수님이 말하는 ‘지역민이 역사 기록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한 발걸음이 되었다.

책을 내고 2020년 1월에 교하도서관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을 초대해 출간기념회도 했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출간기념회에서, 봄이 오면 함께 숲길 산책을 가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봄에 가지는 못했고, 바이러스의 세가 좀 주춤했던 7월에 함께 산책을 갔다.

요즘 왜 민간 아카이브가 관심을 받는가?

시민 사회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 이제 시민이 기록 생산과 활용의 주체로 성장하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기록이라는 건 지배자나 역사의 승리자 또는 소수 엘리트의 것이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엄청난 기록 유산이 있다. 이는 사관이라는 벼슬이 왕의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역사를 편찬한 거다. 사관은 하나의

권력으로서 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지배 세력인 사대부의 시각에서 쓴 왕조의 기록이다. 이는 지배 세력의 기록이지 백성의 기록은 아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지배 계급이 기록 생산의 주체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시민 누구나 기록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제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일상 삶의 기록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기록 또는 기록의 민주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류·중심·지배의 시각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자신의 삶을 소중한 것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일상의 발견’도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미시 담론과 생활사·구술사 등의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 논의가 퍼지면서 곳곳에 영향을 끼쳤다. 거대 담론에서는 민족, 국가, 체제, 계급 등 굵직한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논의 속에서는 마치 일상은 없는 것처럼 취급된다. 반면 미시 담론에서는 거대 담론의 억압적인 측면을 폭로하고 삶의 작은 영역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국가와 민족의 부속품 정도로 존재하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거대 담론에서 해방되면서 비로소 ‘일상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아카이브 관련해서는 미시사의 한 영역인 구술사 또는 구술 기록의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술 기록은 민족, 국가, 체제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드러날 수 없었던 개인의 경험과 기억들을 다룬다. 그것이야말로 또다른 역사적 진실을 반영한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최근 중요한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술사 역시 기존의 거대 담론에 균열을 내면서 발전해 왔다. 구술은 기록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삶을 기록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서사적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새로운 역사 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마을 잡지에서 구술 기록을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디어 교하> 또한 이런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다.

기록 행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기록은 문서·도면·장부·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전자·비전자 기록정보 자료가 되겠다. 그리고 기록 관리는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원칙이다. 보존 중심이다.

그렇지만 민간 아카이브는 공문서 관리와는 많이 다르다. 민간 아카이브 영역에서야말로 형식보다 기록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빚어내는 산물이 아니겠는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가늠하고 미래를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발현되어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록은 나에 의해 그리고 우리에 의해 구성되고 해석되며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록하고 기록을 살피는 행위가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 될 테다. 그렇다면 기록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을 잡지를 만들며 마을 기록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더 잘살기 위해서다. 재미있고, 즐겁게, 의미 있게 지내고 싶은 거다.

민간 아카이브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게 말하면, 다가가서 듣고 기록하고 공유한다! 좀더 삶을 붙이면...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또다른 주체인 마을 주민에게 다가가서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역사 쓰기의 주체로 성장한다. 마을에서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주민 자치를 비롯해 여러 의미를 품고 있는데, 기록의 주체라는 점에 한정해서 얘기해 보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기존에 벌어진 기관 중심의 기록 활동은 그 대상을 삶의 맥락에서 떼어내 박제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한계가 있다. 주민을 대상화하

고 타자화하여 단지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 때로 기록 수집의 과정이 약탈적이기 까지 하다. 무엇보다 참여자를 주체로 여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결국, 그렇게 생산된 기록은 나 그리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흘러간 옛 이야기로 전락할 뿐이다. 그렇게 박제되면 의미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간단히 말해,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관에서 생산하는 지방지를 비롯한 기록 활동이 이런 식인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이런 방식에 근본적인 반성이 일어나 이미 방법론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자료보다 삶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구술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삶의 의미를 새기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며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비로소 구술자는 자신의 주변에 놓여 있던 많은 흔적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의 서사를 구성하는 지적 창조의 과정을 거친다. 자신의 경험을 해석해내는 능동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의미 생산과 기억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약탈하는 자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 인터뷰어 **인터뷰 질문하는 이는** 참여자이자 문외한으로서, 인터뷰이 **질문에 응해 답하는 이는** 우리이자 그들로서 기록을 생산하는 복수의 주체가 된다. 좀더 쉽게 말하면, 구술 자료는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두 주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민간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특히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

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들여다 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첫걸음이다. 공동체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구조화하고 드러내는 작업이기에, 공동체의 참여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참여형 아카이브이고, 이용자 지향성이 특징이다.

참고로, 공동체 아카이브는 로컬 히스토리 그룹^{local history group}, 구술사 프로젝트, 공동체 역사 프로젝트, 공동체 기억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했다. 북미에서 이런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와 실천이 앞서 발전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북미의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와 실천을 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소개글에 “<디어 교하>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아카이빙을 지향합니다.”라고 스스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곳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관성을 담고, 공동체의 이야기와 공동체 감각을 생산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을 잡지 <디어 교하> 외에 또다른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을 하기도 했다. <술이홀작은도서관, 햇살 품은 사람들>이라는 아카이빙 북을 만들었다^{2019년 12월 출간}. 파주에 술이홀작은도서관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2019년 폐관}. 이에 도서관 활동가들과 이용자들이 그곳의 기록을 남겼다. 6개월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주 기록 워크숍을 진행했다. 도서관이 자리한 마을에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 시도였다. <술이홀작은도서관, 햇살 품은 사람들>에는 그 기록 활동의 과정도 실었다. 우리의 공동체 아카이브 철학과 구현 방식을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살펴봐도 도움이 될 테다. 이론을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소개한다. 이 책은 파주시 여러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본 철학은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를 망각과 배제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기록의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이다.

구술 인터뷰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언론 인터뷰와 비교해 보면 구술 인터뷰의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태도부터 크게 차이난다. 언론사에서는 현장 취재를 나가서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와꾸’틀을 만들어서 간다. 미리 글의 방향을 정하는데, 이를 흔히 ‘와꾸를 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신속하게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은 대부분 ‘통편집’될 수밖에 없고, 사전에 만든 ‘와꾸’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이 과장되거나 축소된다. 분명히 강조해서 말했는데 기사 내용에서 흔적조차 없거나, 지나가는 에피소드였을 뿐인데 핵심 내용으로 변질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취재 전에 짠 ‘와꾸’로 실제와 다르게 전달하는 것은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늘 이런 왜곡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인터뷰 기사는 대립되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도발에 걸려들어 답변하면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가 나가기 마련이다. 답변 내용 중에서 기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일부 부분만 떼서 맥락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심지어 실제 답변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나가는 경우마저 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해당 언론사 독자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될수록 클릭 수와 열독률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공을 한다.

기존 언론에 대해 좀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하기는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열린 자세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와꾸’가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듣지 않고 걸러서 듣는 것이다.

반면에, 구술 인터뷰는 인터뷰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터뷰이가 말하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개입하되, 필요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이야기의 흐름을 살리면서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는 역할이다. 그리고 인터뷰이의 말을 최대한 충실하게 듣

는다. 오랜 시간 열린 태도로 진정성 있게 듣는다는 게 큰 차이다. ‘당신의 삶을 알기 위해 온전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태도다. 한마디로, ‘경청’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도 평소에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상대의 말을 경청한 적이 얼마나 있나 돌아보면 자신 있게 답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경청은 큰 힘을 발휘한다. 비로소 우리가 공감과 이해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비유를 해보자면, 언론 인터뷰가 MSG를 과도하게 뿌려 본래 재료의 맛이 사라진 음식이라면, 구술 인터뷰는 MSG를 쓰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가 ‘묻기 중심의 인터뷰’라면, 구술 인터뷰는 ‘듣기 중심의 인터뷰’다. 묻기 중심의 인터뷰는 정보 수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탈적 인터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언론은 속보 경쟁을 해야 하는 운명이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정보를 얻으려고 하게 된다. 반면 듣기 중심의 인터뷰일 때, 말하는 사람이 비로소 서술의 주체가 되며 나아가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방식도 보통 비구조화된 인터뷰 또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활용한다. 참고로,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주제를 제시하되 구술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구조화된 인터뷰는 설문지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을 정해서 가지만, 개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뷰에 응한 분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을 한다. 기자단 모임을 할 때 이런 연구 방법론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모임에서 말할 때에는 일상의 말로 한다.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제시하고 무엇이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면 돼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인터뷰에 나설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마을 기자단이 모두 인터뷰를 능숙하게 잘하는 건 아니다. 희한하게 여겨지는 점일 텐데, 마을 기자단 중에는 인터뷰가 어려워서 하지 않는 이도 있다. 인터뷰를 처음 해보는 이에게는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준비한 만큼만 짧게 하는 것을 권한다. 처음 해보는 분은 당연히 질문지 작성도 어려워하니 질문할 내용을 함께 채우기도 한다. 인터뷰에 관해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도, 현장에서 경험해야 실력이 늘어난다. 그래서 먼저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이론 공부의 기회가 되면 함께한다.

무엇보다, 구술 인터뷰에서는 말하는 이가 풀어놓는 내용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세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역사는 처음에는 구술이었다’는 말도 있다. **새뮤얼 존슨**. 구술은 문헌 자료를 보충하는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1차 자료다. 따라서 마을 기자단은 1차 자료를 생산하는 역사 쓰기의 현장에 있으며, 구술은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밑으로부터의 역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다. 편하게 말하면, 일상의 삶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여길 줄 아는 자세가 있으면 되겠다. <디어 교하>의 민간 아카이브는 이런 자세를 지니고 나아간다.

인터뷰 기사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구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민감한 내용들이 종종 나오곤 한다. 그간 가족에게 비밀로 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조심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 모르게 500만 원의 비자금을 두었는데 어디에 썼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 인터뷰 당시에는 문제 될 것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막상 활자로 나온 것을 보면 인터뷰하신 분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이혼하고 재혼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지만, 아직 자녀에게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거나 섭섭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도 인터뷰하면서 밝혔더라도 글로 공개해도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모두 골고루 신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출간 전에 직접 인터뷰 당사자가 내용 전체를 다시 확인하는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인터뷰하신 분이 확인하고 나서 오케이 하면 비로소 출간해야 한다. 만약 “그 부분은 내가 아직 가족에게 얘기하지 못했으니 글에서는 뺐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빼야 한다.

간혹 인터뷰를 하고서 나중에 글로 정리한 것은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다. 그렇지만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종종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구술 인터뷰는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공동 작품이다. 공동 저자로서 인터뷰 당사자가 직접 보면서 확인 작업을 꼭 해야 한다고 설명 드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확인 작업까지 끝나야 비로소 인터뷰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디어 교하〉가 생산하는 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이는 우리의 약점이다. 정작 우리의 기록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취약한 편이다. 그나마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메모리와 구글 드라이브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디어 교하〉 창간 첫 해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자료로 등록할 테니 보내 달라고. 우리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호가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연락을 주었다. 덕분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메모리에서 〈디어 교하〉 전 호와 특별호인 〈교하 산책 지도〉,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을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파주에서는 교하도서관이 〈디어 교하〉 전 호와 특별호를 지역 자료로 등록해서 도서관 자료실 내에서 볼 수

있다.

인터뷰한 녹음 파일, 녹취록, 사진, 그리고 우리가 벌인 강연회나 출간기념회에 관련된 자료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진 중에는 마을 잡지에 실은 것도 있고 실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라져 버리는 자료들도 있을 테다.

다만, 우리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처음부터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했으니,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자료는 찾을 수 있다. 마을 잡지에 실지 않은 사진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다.

마을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 영역의 역할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대할 곳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은 마을 기록물을 먼저 나서서 아카이브 해왔다. 그런 좋은 모델이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것처럼 마을 기록물 관리에 힘쓰면 좋겠다. 그런데 느티나무도서관은 뜻 있는 시민들이 만든 공공도서관이라서 그러한 선구적인 일이 가능했겠다.

마을 기자단의 연령별, 성별 구성은?

초기 멤버들이 마을 잡지를 시작할 때에는 30대·40대였는데, 그 사이 나이를 먹어서 40대·50대가 되었다. 그래도 새롭게 30대가 참여하기는 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 불안정하고 정주성이 크게 부족한 사회다. 특히 삶이 불안정한 20대 청년은 어디에서든 보기 힘들고, 30대도 아직 삶이 불안정하니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는 등 마을 잡지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갈수록 마을 기자단의 연령 구성이 다양해졌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다. 앞으로 60대 이상만 마을 기자단에 참여하면 연령별 구성이 완

전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자단에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남녀 성비도 균형이 잡히고 있다. 시작할 때에는 여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남성 참여자도 늘어났다. 이것도 마을 잡지의 내용과 색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자단의 다양한 인적 구성이 미치는 영향은?

〈디어 교하〉는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주로 다룬다. 자연스럽게 세대 관심, 성별 관심 등 자신의 상황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여성이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라면 관련 고민을 풀 수 있는 인터뷰를 하는 식이다. 초기에는 여성 참여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주로 여성적 관심사가 반영되었다. 독자 반응도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왔고. 지금은 남성 참여자도 늘어나면서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고 독자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어 교하〉 2019년 겨울호에는 다른 호보다 남성 참여자가 많았고 지역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 부각되었다. 그래서인지 60대 이상 남성 애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동안 잡지를 잘 보았고 응원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 잡지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마을 기자단에 20대 참여자가 생겼다. 이제 20대의 시선과 생각도 담기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독자의 폭도 계속 넓어지고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양성이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마을 기자단의 인적 구성이 마을의 인적 구성과 비슷해지게 되면 가장 좋다. 원주민, 다문화인, 이주노동자 등이 기자단에서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 마을의 다양한 목소리와 마을을 보는 다채로운 시선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테다. 이는 과제로 품고 있다. 〈디어 교하〉 9호 2020년 7월부터 마을 기자단에 이른바 다문화인이라고 부르는 결혼 이주 여성이 함께하게 되었다. 반가운 일이다.

공동체를 어떻게 보는가?

마을 잡지든 마을 아카이브든 하나의 운동이니까, 처음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개방성을 갖고 차츰 넓혀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활동은 공동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마을 잡지는 기존에 인식되지 않던 ‘자신 바깥’에 대한 인식을 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폐거리주의’가 생기기 마련이다. 타자에 대한 인식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공동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타자성이 늘 존재한다. 결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역사라는 구호로 엮을 수 없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블랑쇼는 “공동체는 공동체에 반하는, 존재의 외재성을 포함한다.” 또는 “공동체의 부재는 공동체 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나아가 “공동체가 빈자리로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파악할 수 없다.”라며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해 논한다. 실제로 마을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성은 마치 무의식과 같아서, 까도 까도 늘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투성이다.

나는 이 ‘알 수 없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가야 할 많은 미지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늘 무엇을 만날지 설렌다고 할 수 있다.

<디어 교하>는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①

많은 부수를 찍지도 못하고 대단한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다만, 마을에 긍정적인 기운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곳 주민들에게 소소한 삶의 즐거움은 주고 있다. “마을 잡지에서 봤어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다.



〈디어 교하〉 6호 10~11쪽.

그리고 교하에서 사람, 모임, 장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독자들이 공유하고 활용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재미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디어 교하〉 6호 2019년 3월에 소개한 ‘대성종합철물공구’라는 철물점이 있다. 이곳 사장님이 20년 전에 파주로 오신 분이다. 참고로, 20년 전은 동사무소가 아닌 면사무소가 있던 시절이다. 여기가 남북 분단의 접경지역이다 보니, 아파트 주변에 군부대가 늘어서 있고 군사 훈련으로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밤에는 못 나가고 그랬던 곳이었다고 한다. 벌써 지금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 되었다.

하여간 이 분이 어떻게 해서 20년 전에 파주로 오게 되었고, 당시 이곳의 풍경은 어땠으며,

또 어떻게 해서 8년 전에 교하에 철물점을 내게 되었는지, 한편으로 건물주의 황당한 갑질에 당하면서도 어떻게 철물점을 지켜왔고, 지금은 어떻게 자리 잡았으며, 왜 철물점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다. 평소에도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는 분인데, 인터뷰 기사를 보니 정말 타고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였다.

인터뷰한 마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가게에서 손님 응대하고 물건 고치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셨다고 한다. 1차로 2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다음주에 2차로 4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녹취 풀고 기사 쓰는 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단순한 철물점 소개 글이 아니라, 사장님의 인생사, 그리고 지역의 과거와 함께 소개하는 글이 나왔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분이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철물점을 냈으며 그것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접근했다. 단지 하나의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긴 인생에서 삶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꽤 다르다.

어쨌든, 이 사장님은 어느 아파트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 빌라단지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고 고치는 것을 즐거워했다. 실제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곳에 가면 간단하게 짤 비용으로 해결이 되었다. 스토리텔러일 뿐만 아니라 만능 해결사이기도 한 거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철물점에도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아 <디어 교하> 6호에 철물점 사장님을 소개했다. 6호를 배포하고서 곧바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을 잡지 배포하고 첫 2주 동안 철물점에 문의 전화가 계속 와서 사장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단다. 손봐야 할 것이나 고쳐야 할 것이 많은 신도시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 <디어 교하>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놀랐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곳에서 인터뷰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촉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발굴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독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디어 교하〉는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②

〈디어 교하〉에 소개되면, 때로는 교하도서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교하의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교하도서관은 마을과 함께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그것이 교하도서관의 전통이기도 하다.

〈디어 교하〉 창간호 2017년 8월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교하도서관과 좋은 관계가 있었다. 〈디어 교하〉 창간호를 교하도서관 1층 복도 갤러리에 전시했고, 교하도서관 개관 9주년 행사 2017년 9월 23일에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을 초대했다. 덕분에 9주년 행사에서 많은 분들에게 마을 잡지 〈디어 교하〉의 창간을 알리고 그간의 작업 과정도 발표했다. 당시 ‘〈디어 교하〉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했던 시시가 〈디어 교하〉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멋지게 알렸다. 지금도 계속 〈디어 교하〉 새로운 호가 나올 때마다, 교하도서관 1층 복도에 전시하거나 때로 2층 로비에 전시하기도 한다.

교하도서관 개관 9주년 기념 행사에서 〈디어 교하〉 창간호를 소개하는 시시(김지하).





교하도서관 2층 로비 한가운데에 전시된 <디어 교하>

교하에서 마을 활성화가 가능했던 데에는 교하도서관의 역할이 분명 있었다. 예를 들어, 교하도서관에 ‘동네 사람’ 강연회라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 사람을 만나는 자리다. 동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 나눈다. <디어 교하> 4호^{2018년 7월}에서는 화가이자 해몽페네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김성희 님을 소개한 적이 있다. 동네에서 플리마켓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그랬다. 이 분이 다음해인 2019년 교하도서관 동네 사람 강연회에 초대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교하도서관에서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이라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 중 하나인 ‘서패동 마을 극장’을 이 분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디어 교하> 3호^{2018년 3월}에 숲놀이 활동가인 이혜란 님을 소개한 적이 있다. 2019년에 교하도서관에서 ‘마을 사람, 도서관 숲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서관 주변 숲길을 산책하는 계절별 생태수업이었는데, 이를 이혜란 님이 진행했다. 거의 다달이 진행되었고, 이혜란 님은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이 만든 <교하 산책 지도>를 참여자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랬다.

한편, <디어 교하> 4호에서는 ‘골목대장’이라는 재미난 미술 공방을 운영하는 ‘햄스터’를 소개한 적이 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햄스터라고 부른다.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nell'Emilia’라는 이탈리아의 대안 교육에 영향을 받았고, 재미난 실천을 하는 분이다. 2019년에 ‘도서관에서 안 해본 것 해보기’라는 교하도서관 여름 독서교실에서 ‘모험의 집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문발동 마을 에세이’의 한 프로그램인 ‘책 먹는 포차’를 햄스터가 운영하는 미술 공방 골목대장에 가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디어 교하>가 발굴해서 소개한 이야기와 사람과 공간이 공공기관인 교하도서관을 통해 더욱 연결되고 확대되는 거라서 반갑다. 교하도서관은 <디어 교하>의 주요 배포처로서 많은 사람들이 <디어 교하>를 만나고 알게 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디어 교하>가 발굴한 콘텐츠가 마을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디어 교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019년, 교하도서관에서

〈디어 교하〉에 청소년 마을 잡지 워크숍을 제안했다. 그해 10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주에 걸쳐 쏘크라와 시시가 교하도서관에서 청소년 마을 잡지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청소년이 같은 또래인 청소년을 인터뷰하거나, 자신의 꿈과 관련해 작가와 교사를 인터뷰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12명의 청소년이 각기 콘텐츠를 완성했고, 그 결과 12월말에 ‘청소년이 발견한 교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두드림〉이 나왔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목소리, 그리고 청소년의 시선이 담겨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교하도서관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그리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메모리에서 〈두드림〉 PDF 파일을 볼 수 있다.

마을 잡지 발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마을 잡지를 발간하는 비용 문제다. 봉사 와 후원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늘 인쇄 비용이 부족하다. 2019년에 이미 인쇄비가 없어서 마지막 호가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그랬더니 후원금이 더 들어와서 발간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디어 교하〉가 어느날 갑자기 나오지 않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딘가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대주는 곳이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관변 잡지도 아니고, 기업 잡지도 아니며, 특정 기관의 잡지도 아닌, 마을 주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만들어지는 ‘독립 마을 잡지’의 특성을 유지하고 싶다.

어쨌든 주민들의 후원과 봉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해마다 공모사업에 지원하곤 한다. 문화재단이나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지원한다.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되면 올해도 마을 잡지 발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었구나 한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일 뿐이다. 재정적으로 완전 독립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뿐이다.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

우선, 사업비를 볼모로 온갖 서류 작성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함이 있다. 그래서 첫째로,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 점검이다 최종 발표다 하면서 자꾸 부른다. 이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니까 불려서 발표를 시킬 때에는 ‘발표 비용과 차비를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때로는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황당하다.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일에만 열심인 곳도 있다. 이런 곳은 피해야겠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규격화, 모임의 경직화, 창의성의 제한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지는 않다. 사업을 규격화시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 모임이 경직되고 창의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말들과 일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관료제의 언어가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번엔 우리가 뭔가 재미난 걸 해볼까’ 하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 ‘올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나’는 말을 서로 하게 된다. 일종의 놀이와 같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관료제의 언어가 사용되고, 정작 자신의 스케줄이 뒷전이 되고 공모사업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서 내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단지 사업비를 끌어올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다.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량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잡지를 내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은 어디선가 지원금을 받을 때만 내는 것이다. 요즘에는 곳곳에서 마을 잡지가 새로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다시 안 나온다. 처음에 문화재단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은 하는데, 독립하지 못하니 다시 안 나오는

것이다. 독립을 전제로 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마을 잡지 운동은 민간 아카이브 활동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 마을 활성화, 주민 자치, 지역사 발굴과 지역 담론 형성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공공성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지원이냐가 문제가 된다.

이른바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미디어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 활동을 관이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 주민 활동을 관이 이끈다는 것은 ‘동근 사각형’과 같은 형용 모순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지난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관제 사업이 되고 새로운 관변단체를 양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관이 앞장서면 안 되고 ‘중간조직’인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겠다.

방식은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이 아니면 좋겠다. 2년 이상 유지한 마을 잡지에 대해 별도의 사업 계획서를 요청하지 않고 신청서만 받아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어떨까. 지난 활동은 그간 발간한 마을 잡지로 검증이 되니 말이다. 사용할 때에도 예산 항목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쓰게 하면 좋을 테다. 핵심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지원이 아니라 그것을 북돋는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나 마을 아카이빙 지원에 행정의 독점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경쟁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면 무사안일, 복지부동, 비효율, 조직 이기주의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만약 행정이 마을 아카이빙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면, 민간위탁 마을 아카이빙 사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영 서비스와 민간 위탁 서비스의 경쟁이 있어야 비로소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관련해서 꼭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력과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의 자발성이다. 이게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야 지속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단기 성과는 나올지 몰라도 지속되지는 않을 테다. 또는 관변잡지처럼 변질되거나 관의 주민 동원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마을 잡지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기록을 생산하면서 일상의 발견, 지역사 발굴, 공동체 형성, 마을 활성화, 주민 자치, 시민 사회 성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치를 보면서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테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김귀옥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한울, 2014년 1월.
- 박채란·김지하 <교하, 다가가다> 빛나는순간, 2016년 12월.
-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지역 기록자를 위한 아카이빙 길잡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9년 12월.
- 안정희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이야기나무, 2015년 11월.
- 어반플레이 편집부 <로컬전성시대 -로컬의 최전선에서 전하는 도시의 미래> 어반플레이, 2019년 2월.
- 윤태림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19년 1월.
- 최현숙 외 <이번 생은 망원시장> 글항아리, 2018년 3월.
- 마르셀 모스(이상률 옮김) <증여론> 한길사, 2002년 7월.
-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박준상 옮김)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년 11월.
- 파울루 프레이리(남경태 옮김) <페다고지> 그린비, 2018년 9월.

논문

- 김익한 '마을성 아카이브의 철학과 방법' <월간 주민자치> 20, 한국자치학회, 2013년 6월, 18~21쪽.
- 김현석 '기록과 공생의 가치' <구술사 연구> 10권 2호, 구술사학회, 2018년, 205~212쪽.
-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지역 역사문화 아카이빙을 위한 김포 북변동 스토리텔링 사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2019년 2월, 275~281쪽.
- 엄수용 '도시기록 아카이브 설립방안 연구: 성남시의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년.
- 이민재 '도시화에 따른 주택지 개발과 마을의 변화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학 연구> 2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5년 8월, 175~218쪽.
- 조은새 '지속가능한 마을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대천마을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년.
- 최윤진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년.
- 최정은 '공동체에게 다가가기: 공동체 아카이브, 복수의 주체의 가능성' <구술사 연구> 8권 1호, 구술사학회, 2017년, 59~91쪽.



Part

2

마을 잡지 〈디어 교하〉가 나오기까지

김지하*

- *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인생을 위로해주는 소중한 친구이자 소박한 밥벌이가 되었다. 예쁜 사진을 찍기보다는 사진을 통해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 그러다보니 동네일도 하게 되고 〈디어 교하〉 기자단, 찜오책방 조합원도 하며 원래 성격보다는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

들어가며

마을잡지 <디어 교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결과물은 아니었다. <디어 교하>가 탄생한 해의 전년도인 2016년에 경기문화재단의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교하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풍경을 담은 작은 인터뷰집이 나왔다. 어쩌면 <디어 교하>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작은 책에서 흔쾌히 인터뷰해 주었던 주민들은 이듬해인 2017년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인터뷰어가 되어보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마을잡지 <디어 교하>이다.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첫 시작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지원사업과 약간의 후원금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첫 시작이 되었던 과정^{2016년 인터뷰집 ‘교하,다가다’}부터 2018년 가을특별호 ‘교하산책지도’까지를 사업순서대로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2016년 10-12월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청년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프로젝트명: 도시이민자, 신도시로 떠난 사람들

결과물: <교하, 다가다> (인터뷰×사진집)

질문의 시작 - “도시이민자, 신도시로 떠난 사람들”

2016년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북부청년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났던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사진활동가로 작업을 해 오고 있고 마을공동체를 기웃거리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던 나<디어 교하> 필명: 시시는 2016년 당시 청년의 이름이 걸린 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보다도 사실은 2015년 여름에 파주의 교하신도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한 후 맞닥뜨렸던 풍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서글픈 묘한

감정을 느껴서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것 같다. 2015년, 나는 교하의 여유로운 동네 풍경에 반해 이사를 결심했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큰 아이를 생각하면 학군도 따져봤을 법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높지 않은 아파트들, 주택단지들, 그 사이에 군데군데 위치한 초록이 짙은 공원들과 산책로만으로도 교하로 이사할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반년 정도 살아보았을 무렵, 바로 옆에 유명브랜드의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한 또 다른 신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심지어 모든 주요 시설들이 그 신도시에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교하’라는 이름은 새로운 신도시 이름에 밀려나 ‘구’신도시가 되어가는 중이었으니, 내 머릿속엔 질문이 생겼다. ‘도대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이제는 낡아버린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신도시로 갈 계획이 있을까?’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인터뷰와 사진인가?

마침 교류하고 있었던 동화작가 박채란과 마음이 맞아 이 질문을 핵심으로 하여 인터뷰와 사진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다. 박채란 작가 역시 교하보다 더 오래된 구신도시인 일산에 살고 있었고 교하를 자주 드나들며 사람들을 만나곤 했으므로 함께 시도해보기에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다. 특히, 박채란 작가는 2004년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책을 통해 안산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었던 경험이 있고, 나 역시 사진을 통해 피사체가 수동적으로 찍히기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포토보이스 Photovoice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와 ‘사진’이라는 요소를 잘 결합하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는 바로 인터뷰와 사진이었다.

대상자 선택하기

프로젝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되 거주지의 선택에 교육이라는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기로 했고, 대신 참여자들의 자녀의 연령은 고르게 분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교하 거주 2년차였던 나를 포함하여 교하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11년간 거주한 주민까지 총 네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장 신경을 쓰며 진행했던 부분은 단순한 문답식 인터뷰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삶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 인터뷰는 최대 3시간까지 여유를 두고 진행했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만나서 보완했다. 그 와중에 한 참여자의 취미였던 꽃 접사촬영의 사진들과 또 다른 참여자가 그린 교하의 스케치를 인터뷰집에 함께 실을 수 있었다. 인터뷰작업을 마친 후에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감상 및 개인적인 **교하주민으로서의** 느낌들을 사진들로 표현하여 포토 에세이로 구성했고, 인터뷰 대상자의 숫자가 많지 않았으므로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하여 더 많은 교하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교하에 살고 있는 이유, 교하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교하를 표현하는 한 장의 사진 등의 항목으로 총 20명의 교하주민들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보태어 실을 수 있었다. 설문지 배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프로젝트가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출간과 그 이후

이 모든 결과물을 담은 인터뷰와 사진집 <교하, 다가가다>는 단행본으로 200부를 제작하여 교하지역의 동네서점 **당시 땅콩문고와 발전소책방**과 도서관, 게스트하우스<쉽표>, 일산의 어린이책 전문서점<알모>등에 입고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소박한 출간기념회를 열어 프로젝트 참여자

들의 소감도 들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라는 그릇에 담겨 나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하에서 더 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는 바람들이 있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질문하고 듣고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 프로젝트는 이후로 벌어질 많은 일의 아주 작은 시작점이 되었다.

2017년 5-11월 경기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디어 교하〉 프로젝트'

부제: 교하사람들, 묻고 답하고 찍다.

결과물: 마을잡지 〈디어 교하〉 창간호 & 겨울호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시작 - 말하는 이에서 듣는 이로의 변화

인터뷰x사진집 〈교하,다가가다〉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교하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신선했다는 이야기,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았을 거란 이야기, 파워포인트로 편집을 했다는 말에 놀랐다는 이야기, 그래서인지 디자인이 아쉽고 공기관의 출판물처럼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피드백에 놀랐다. 나와 함께 했던 박채란 작가 역시 프로젝트를 일회성으로 끝내기엔 아쉽다는 의견이어서 2017년에 경기문화재단의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에 후속 프로젝트를 내보자 했고, 운이 좋게도 선정되어 그 해 봄 교하에 조금 더 오래,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생겼다. 2016년 프로젝트에 인터뷰 대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총 여섯 명을 새로운 인터뷰어로 섭외했고, 본격적으로 인터뷰와 사진작업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인터뷰와 사진워크숍을 각각 4회씩 진행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워크숍

워크숍은 강의 중심이 아닌 참가자의 참여 및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참여자 모두 주변 사람들과 공간을 사진에 담고 인터뷰하여 글을 써보는 실습을 하고 강사가 평가하는 식이 아닌 참여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직접 인터뷰하는 과제를 할 때 한 참여자는 아들을 인터뷰했는데 대화를 진행하면서 아들이 어느 순간 입을 닫고 인터뷰를 피하는 행동을 보여서 참여자가 그동안 아들과 소통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지점들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인터뷰에 필요한 인물사진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할 때에는 피사체와 가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찍는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생소한’ 시간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사진을 통해 누군가와 교류하는 것, 소통하는 것에 대해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사진워크숍을 진행했던 나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념인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워크숍’을 동네에서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박채란 작가가 진행했던 인터뷰워크숍 역시 인터뷰의 기술을 이론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리스트로 만들어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피드백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모두가 모두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다.

주민들의 인터뷰 작업

그렇게 총 8회의 워크숍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각자 인터뷰 대상자를 정하고 인터뷰와 사진 작업을 진행해야 할 시기가 왔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무한칭찬을 아끼지 않아 사기충만했던 6인의 인터뷰어들은 7, 8월의 무더운 한여름 동안 무수한 땀방울을 흘리며 교하를 돌아다녔다. 거의 매주 모여서 중간점검 및 피드백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

해 편집장을 선출했다. 참 신기하게도 참여자들 중에는 출판사 경력을 가진 분과 현직 북디자이너가 있었다. 일부러 찾아서 모은 것도 아닌데 참여자들 조합이 그렇게 된 것이 <디어 교하> 팀에게 정말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다. 그 후 자연스럽게 편집장과 디자이너의 주도로 편집과 디자인회의가 이어졌고, 교하 최초의 마을잡지 <디어 교하>가 탄생하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마을잡지 제작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인터뷰 결과물과 사진들을 단행본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교하에는 마을잡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잡지의 형태로 만들면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편할 거라는 의견이 모였다.

<디어 교하>라는 이름의 배경

잡지의 이름은 프로젝트명인 <디어 교하>로 가기로 했다. 사실 이 프로젝트명에 대해서는 조금 오래된 사연이 있다. 2008년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디어 토론토 Dear Toronto’라는 커뮤니티아트프로젝트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다. 전시공간이자 작은 커뮤니티 공간의 한쪽 구석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디어 토론토’라고 도장이 찍힌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토론토에게 편지를 써서 남겼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전시공간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져 공유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장소 혹은 도시에게 편지를 쓴다는 발상이 재미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던 기억이 있다. 친애하는 토론토에게, 이토록 다정한 프로젝트라니! 나중에 내가 한 국에 돌아오면 어딘가에서건 꼭 ‘디어 Dear’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마주하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마음을 이 프로젝트 참여자 여섯 명과 공유했고, 고맙게도 모두가 그 이름에 찬성해 주었다.

창간호의 배포와 도서관 전시

〈디어 교하〉의 창간호는 여름에 탄생했고 총 800부를 인쇄하여 교하, 운정의 도서관, 카페, 책방, 베이커리, 식당 등에 배포했다. 교하 최초의 마을잡지를 본 사람들은 함께 환영하고 기뻐해 주었다. 그 결과 교하도서관의 지하갤러리에 창간호 전시를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도서관 9주년 행사에서는 ‘디어 교하’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영광도 누렸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신이 난 우리는 바로 겨울호 준비에 착수했다. 다행히 사업지원금이 잡지를 두 번 발행할 수 있을 정도였고, 한번 경험해봤다고 작업은 겨울호 제작을 앞두고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창간호에 인터뷰 기사만 담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여 겨울호에는 책 소개나 교하의 골목주차문제와 같은 주제가 있는 르포기사도 신기로웠다. 그렇게 그 해 가을 또 다시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면서 〈디어 교하〉 겨울호를 탄생시켰다. 창간호가 일찍 동이 났기 때문에 1,000부로 늘려서 인쇄한 겨울호를 들고 이곳 저곳 배포하면서 ‘어? 이 잡지 또 나왔네? 이제 계속 나오는 건가요?’와 같은 질문들을 받았다. 사실 이 질문은 내게 ‘계속 이 잡지 보고 싶어요.’라는 말로 들렸다. 맘이 잘 맞는데다가 열정이 넘치고 실력 있는 멤버들이 모였기에 계속 꿈을 이루어나가고 싶었던 것 같다. 그 마음만으로도 내후년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게다가 창간호와 겨울호를 보고 기자단을 함께 하고 싶다는 연락들이 이어졌다. 청소년들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말하는 이에서 듣는 이가 되고, 동네의 이야기를 담아서 나누었을 뿐인데 한 권의 잡지에 다 담을 수 없는 관심과 격려들이 이어졌다.

2018년 6-8월 파주시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찾기사업’

결과물: 교하산책지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업

마을잡지 <디어 교하>는 2017년 창간호와 겨울호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계속 잡지를 내야겠다는 바람과 좋은 평가에 힘입어 2018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잡지제작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고 새롭게 합류한 마을기자들과 함께 열심히 2018년 봄호와 여름호를 만들어냈다. 그 와중에 <디어 교하> 마을기자단의 활약을 지켜본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마침 파주시에서 매년 공모하는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찾기사업’에 마을기자단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자유롭게 활동하는 마을기자단의 성격과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사업에 간섭을 하게 될 것이 뻔한 성격의 사업이 잘 맞을까라는 우려와 더불어 협업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동안 딱딱했던 관의 사업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공존했다. 결국 우리는 우려는 접고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해보자는 결정을 내렸고 2018년 6월 14일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왕 협업하는 거 기존의 마을잡지 형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모색해보자 했다.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찾기라는 사업명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미 10년이 넘은 교하신도시는 오래된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하가 지닌 장점들에 주목해 보기로 했다. 나지막한 아파트들과 주택들로 인해 넓은 하늘을 볼 수 있고, 곳곳에 잘 정비된 산책로 덕분에 걷기 좋은 도시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교하도서관에서는 2016년 ‘걷는 동네 마을의 기록’이라는 길위의 인문학 행사도 열렸었고 이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하산책지도>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교하의 산책길과 그림지도의 만남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첫 만남은 파주 지역의 역사에 일가견이 있는 시인이자 인문책방<부엉이책방>현재는 운영하지 않음을 운영하는 이덕완 선생님의 강의에서였다. 책방에서 파주 지역의 고인돌에 대한 역사 및 특이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들은 마을기자단의 자유로운 활동들이 신기한 듯이 많은 질문을 주시기도 했다. 아무래도 교하 일대에서 오래 살며 이 도시의 탄생과정을 지켜봐 온 분들이 보기에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새로 들어온 대체로 젊은 이주민들의 마을활동이 색다르고 재미있어 보였을 것이다. 첫 만남 이후엔 이덕완 선생님의 가이드로 당하리 고인돌과 파주 북부 덕은리 고인돌의 유적들을 함께 돌아보는 답사활동도 했다. 이해 여름도 마을기자단은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교하산책지도>의 목차는 ‘자연을 만나는 산책길’로 심학산 가는 길, ‘일상을 지나는 산책길’로 숲, 사람, 책이 함께 하는 일상의 산책길, ‘역사를 만나는 산책길’로 고인돌 산책길, ‘쉼이 있는 산책길’로 벤치가 있는 풍경의 산책길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산책길의 사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림지도를 넣었다. 그림지도는 교하에 살면서 평소 지도작업에 관심이 많았던 안승희 그림작가님이 흔쾌히 함께 해주기로 하여 성사되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능력자들을 만나게 되는지! 교하엔 유난히 다양한 인재들이 많은 건지, 아님 우리의 바람이 모여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냥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협업의 경험, 발전과 한계

마을기자단 모두가 우려하면서도 기대했던 첫 협업은 마냥 달콤하지는 않았다. 이미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던 기자단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던 주민자치위원회의 분위기가 조화롭게 섞여서 하나의 멋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림은 그저 우리의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다. 물리적으로도 모두가 함께 만나서 세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마을기자단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하여 초반 기획회의 이후에 전적으로 프로젝트를 맡겼기 때문이다. 물론 마을기자단이 그 이후의 과정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지만, 기자단과 위원회가 모여 중간점검을 하지 않은 부분은 결과물에 대한 일부 위원회 분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교하산책지도>책이 나온 이후 마을기자단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파주 교하의 심학산에 모여 산책지도를 배포하며 둘레길 걷기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세련되면서도 유용한 산책지도라는 좋은 평가를 주셨지만, 좀 더 실용적인 정보 예를 들면 산책로의 맛집 정보와 같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섞인 평가도 있었다. 뻔한 가이드북이 아닌 감성이 들어간 사진과 에세이 중심의 가이드북을 만들겠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산책지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따라 원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지역의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피드백이었다. 그리고 마을잡지 <디어 교하>를 포함해서 이 모든 작업들이 좀 더 알려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매 호가 나올 때마다 마을기자단이 직접 잡지를 들고 배포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배포 장소를 계속 발굴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꾸준히 게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검색을 하면 <디어 교하>의 내용을 볼 수 있고,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만 최근호가 업로드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마을기자단 내부에서 자료관리와 홍보작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새로운 테마로 그 동안의 염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교하산책지도를 만들어본 것은 시도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고, 마을기자단 스스로도 다양한 산책길을 걷고 관찰하고 소개하며 지역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다.

타임라인

2016

〈도시이민자, 신도시로 떠난 사람들〉 프로젝트

- 10.14. 1차 인터뷰 진행 @교하 땅콩문고
- 11.04. 2차 인터뷰 진행 @교하 커피발전소
- 12.01. 3차 인터뷰 진행 @교하 커피발전소
- 12.14. 4차 인터뷰 진행 @교하 크리스피
- 12.15. 5차 인터뷰 진행 @교하 커피발전소
- 12.16.-20. 설문조사지 취합 및 편집진행
- 12.26. 〈교하, 다가가다〉 출간기념회
- 후속작업: 인근서점 및 입고가능한 다양한 독립서점과 컨택하여 입고진행

2017

〈디어 교하〉 프로젝트

- 05.18. 프로젝트 첫 모임 프로젝트 소개 및 참가자, 일정 공유
- 05.25. 인터뷰 워크숍 진행: 박채란 작가
- 06.01. 친목 워크숍 진행: 박채란 작가/김지하 공동
- 06.17. 사진 워크숍 진행: 김지하
- 06.29. 원고 & 사진 피드백워크숍 진행: 박채란 작가/김지하 공동
- 08.04. 마을잡지〈디어 교하〉 창간호 편집회의
- 08.22. 〈디어 교하〉 창간호 인쇄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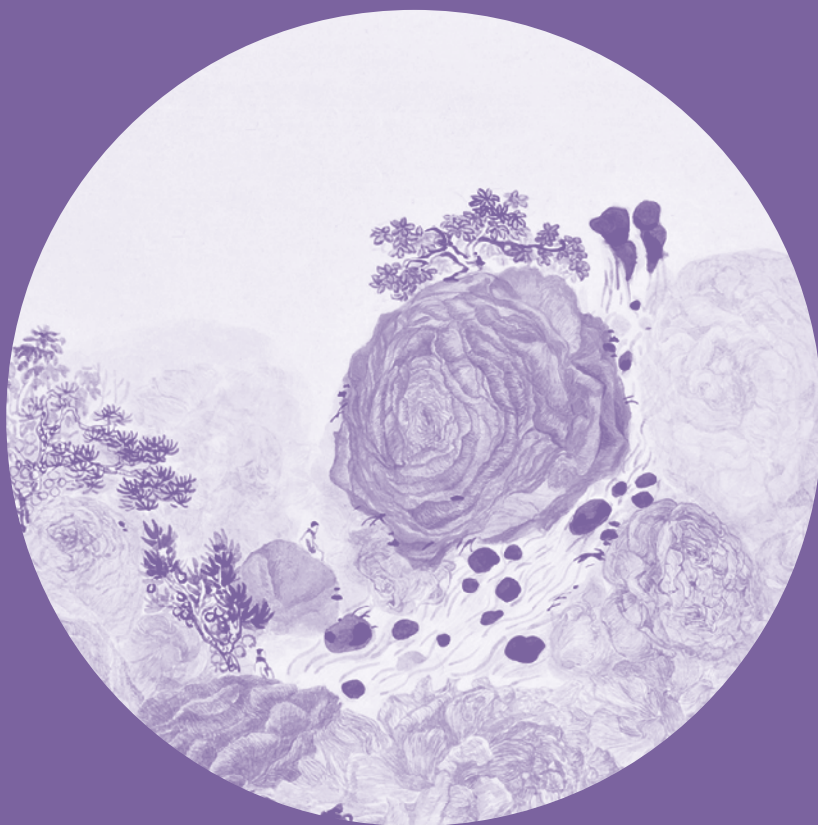
〈디어 교하〉 프로젝트

- 08.29. 〈디어 교하〉 창간호 출간
- 09.02. 〈디어 교하〉 창간호 배포
- 09.08. 〈디어 교하〉 전시설치&오픈 @교하도서관
- 09.23. 교하도서관 9주년 행사 〈디어 교하〉프로젝트 발표
- 11.06.-12.05. 〈디어 교하〉 겨울호 편집회의
- 12.12. 〈디어 교하〉 겨울호 인쇄감리
- 12.14. 〈디어 교하〉 겨울호 출간

2018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 찾기사업: 교하산책지도〉

- 06.14.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디어 교하〉기자단과
교하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협약식 체결
- 07. 파주시 탄현면 〈부영이인문책방〉에서 이덕완님 파주역사강의
- 08.31. 파주시 당하리 고인돌 산책로, 덕은리 고인돌 답사
- 09.03. 그림지도 초안 회의
- 09.17. 〈교하산책지도〉 최종편집회의
- 10.01. 〈교하산책지도〉 인쇄감리
- 10.04. 〈교하산책지도〉 출간
- 10.06. 심학산 둘레길 축제에서 〈교하산책지도〉 배포



Part

3

지도로 기록하는 교하 아카이브

김동희*

- * 호기심이 많아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말을 잘 건넨다. 마음 맞는 동네가게 주인을 만나면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한다. 재밌는 이야기를 나만 아는 게 아쉬워 <디어 교하>에 참여해 멋진 동네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너의 이야기를 듣는 건 너를 이해하고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믿는다. 교하에서 '슈룹'으로 불린다.

일의 시작은 그랬다

돌이켜보면 2018년은 <디어 교하>와 기자단에게 새로운 도전이 많았던 한 해였다.

<디어 교하>가 지역에 알려지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이곳저곳에서 들어왔다. 같은 해 <디어 교하> 가을호는 <교하 산책 지도>였는데, <교하 산책 지도>는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 파주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교하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어 만든 작은 책자로 민관이 협력해서 진행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였다. 나도 <교하 산책 지도> 작업을 통해 <디어 교하>와의 첫 인연을 맺었다. 직장과 집을 오가기 바쁜 생활만 하던 나는 늘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고, 창조적인 작업을 꿈꾸었다. 마을 잡지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어 기회를 엿보던 중 <교하 산책 지도>에 대해 이야길 들었고, 한 쪽지를 맡아 글을 쓰게 되었다. 드디어 원했던 일이 이뤄졌다. <교하 산책 지도>를 잘 마무리 하고 여기저기 칭찬과 좋은 소식을 전해 들으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쳐난 때였다. 그래서 교하 아카이브 사업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2018년 여름의 끝 무렵, 찜오책방 조합원 A 씨가 교하 아카이브 사업을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과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비용 등은 공모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책방에서 회의하는 자리에 있던 나는 얼떨결에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하 산책 지도>를 통해 교하에 고인돌이나 파평 윤씨 묘역 등 기록할 수 있는 마을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를 기록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당연했다. A 씨가 공모 사업 전반을 이끌었고, 수집하고 기록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이 맡았다. 민간 아카이브에 대해 잘 몰랐지만, 교하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교하 아카이브는 꼭 필요하다

운정 신도시가 3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교하지구 일부 지역도 이에 포함되었다. 교하 신도시 주민들은 교하신도시가 운정 신도시에 편입되도록 교하에서 운정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에 1200년 전부터 이 땅을 부르던 ‘교하’라는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운정신도시로 편입해야 아파트 가격 상승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퍼지자 교하라는 명칭은 버려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신도시 추진이 언제나 문제였다. 지역의 역사와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명명하고 지역을 해집었다.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들의 갈등과 상처는 살피지 않는다.

운정 3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교하지구 한 귀퉁이에 남아있던 논밭과 하천이 바뀌게 되었다. 교하에서 시작해 탄현^{파주}으로 흐르는 지방하천 청룡두천은 교하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 코스로 아무 연고지도 없는 신도시로 이사와 청룡두천을 걸으며 교하에 정을 붙였다는 주민이 많았다. 하천 주변 버드나무가 다 베어지고 고라니도 종종 출몰하던 땅이 다 파헤쳐졌다. 임시 벽이 높게 세워지고 나서 원룸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있는 문발동 28통 교하 주민들은 한강하구로 이어지는 멋진 낙조 대신 답답한 공사장 임시 벽을 보고 살아야 했다. 늘 그랬듯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개발은 기존의 마을과 동네를 보존하면서 천천히 고쳐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것 해체하고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디어 교하> 마을기자단과 교하를 사랑하는 주민들은 운정 3지



운정 3지구 사업 진행 중 청룡두천의 모습

구 개발로 사라져갈 교하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교하 아카이빙을 기획했다. 사업목적은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기록을 발굴 보존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나름 거창한 목표였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는 교하의 모습을 기억하고 현재를 수집해 디지털로 아카이빙 하여 활용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 히스토리핀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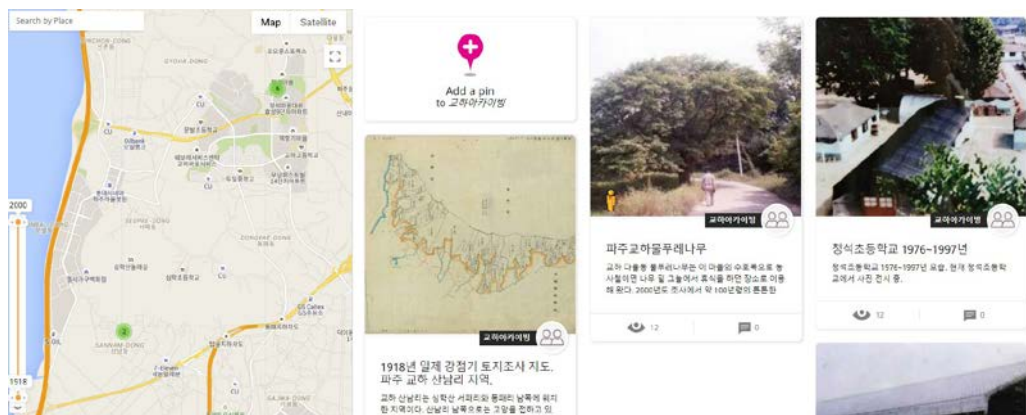
히스토리핀¹과 만나다

진행을 맡은 A 씨가 히스토리핀을 소개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히스토리핀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로 지도에 원하는 지역을 찾아 핀으로 고정하고 그 지역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짧은 메모 등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다. 그렇게 올린 콘텐츠는 사이트를 접속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험에 기반해 사진, 음성, 동영상 등과 함께 관련 정보나 이야기를 자유롭게 사이트 지도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개인의 기억은 디지털 지도 위에 시간과 장소로 기록되고 핀으로 고정된다. 히스토리핀의 재밌는 장점은 한 지역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로 동시에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하 물푸레나무의 모습을 찍은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히스토리핀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과거 물푸레나무는 산자락 어귀에 친구 나무들과 어울려 서 있지만, 현재는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홀로 외로이 서 있다. 20~30년 사이에 일어난 지역의 변화를 두 장의 사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 히스토리핀 홈페이지 <https://www.historypin.org>

히스토리핀이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진, 음성,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We Are What We Do'가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특정 지점의 옛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히스토리핀 홈페이지에 '교하아카이빙'으로 올린 교하의 옛날 사진과 기록들

히스토리핀은 지역의 특별한 장소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공유한다.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만나면 사진이나 글을 통해 기록하려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장소와 만나는 주체 각기 다른 감정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20~30년 전 물푸레나무를 찍은 사진은 단순한 기록물로 누가 봐도 대충 찍은 티가 난다. 그냥 물푸레나무를 사진에 담으면 된다는 듯하다. 현재 시점에서 찍은 사진 속 물푸레나무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애뜻함이 느껴진다. 어쨌든 물푸레나무의 우아하고 오랜 숨결을 담아내고자 애쓴 흔적이 보인다.

히스토리핀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고정한다. 장소 정보를 이용해 거리 전경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위에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미지를 덧붙인다. 이용자들은 장소, 건물, 풍경, 주민들의 현재와 과거 모습을 비교한다. 수집되고 공유된 기억과 기록물은 슬라이드 쇼로 전시되거나 도보 투어로 활용된다.

디지털 기기 다루는 걸 좋아하고, 나름 잘하는 내가 히스토리핀을 맡게 되었다. 정확히 내가 맡은 일은 사람들이 발굴하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히스토리핀 사이트에 올리는 일이었다. 일의 과정은 직장에서 하는 상품을 정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피드백을 받는 일과 비슷하기도 했지만, 교하 아카이빙과 히스토리핀 작업이 훨씬 더 재밌고 보람되고 흥분되는 일이었다.



2주마다 이뤄진 마을 기록단 회의 모습

우리는 마을 기록단이다

마을 기록단은 2주마다 만나 회의를 했다. 주제 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구술 및 사진 자료 수집을 통해 교하지구에 대한 과거, 현재를 사진으로 공유하고자 했다. 마을 기록단 개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주제를 정했지만, 회의를 통해 아카이브 중요도를 살펴 우선순위를 정했다.

히스토리핀을 통한 ‘2018 교하 히스토리핀’ 사업의 시작은 수집이었다. 과거의 교하 모습을 담은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사진과 지역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지도, 자료를 찾았다. 주민이 제작한 자체 영상을 수집하고, 교하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인터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주민과의 인터뷰는 기술이 필요하다. 마을 기록단은 같은 지역 사람이라 주민에게 접근하는 건 쉽지만, 인터뷰를 통해 과거 이야기를 끌어내고 기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를 통해 취재를 몇 번 했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여전히 부족했다. 그래서 사업의 첫 시작은 마을 기록단의 교육과 학습이었다. 아카이브와 구술채록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세 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다. 외부 전문 강사 강의를 통해 기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기록단 구성을 위한 주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교하도서관에서 오픈 형식으로 무료로 진행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의 강의 후 마을 기록단 참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워크숍 한차례 진행했다.



교하도서관에서 진행한 강의
홍보 배너

기억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는 법

마을 기록 관련 첫 번째 강의는 8월 29일, 기록 관련 전문가이자 국가기록원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동유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이 ‘일상 기록과 공동체 아카이브’란 주제로 마을 아카이빙 방법론을 강의했다. 두 번째 강의는 한 주 뒤 9월 5일, 전미정 기억발전소 대표가 ‘기억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는 법’을 진행했다. ‘개인과 사회의 기억을 가치 있게 만드는 소셜벤처’인 기억발전소는 사진을 중심으로 개인사와 생활사를 아카이브 하는 곳이다. 9월 12일, 세 번째는 구술채록가이자 아동문학가인 박채란 작가가 ‘여성주의 구술사의 이해와

실제'로 강의했다. 박채란 작가는 이주 노동자가 많이 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을 배경으로 코시안 어린이, 산업재해 피해자 등 다양한 이들의 삶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형식의 <국경 없는 마을>을 비롯해 망원시장 여성 상인 9명의 구술 생애사인 <이번 생은 망원시장>의 공저자이며, <오십 번은 너무해> 등을 쓴 동화작가이기도 하다.

강의 이후에는 마을 기록단 활동이 시작되었다.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정보를 나누고 회의를 진행했다. 각자 수집한 구술채록과 사진을 모아 히스토리핀 담당자에게 보내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종료는 11월 말이었다.

인터뷰는 쉽지 않다

마을 기록단은 주변 지인을 통해 지역에 사는 원주민을 찾아갔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원주민을 취재하고 싶었지만 거절하셨다. 교하 아카이빙 사업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인터뷰는 잘 응해주지 않았다. 교하에 사는 원주민들은 내향적이지만 커뮤니티 결속이 강하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원주민들은 쉽사리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만 구술채록이 가능했다. 마을 기록단 활동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지역주민에게 교하 아카이브의 필요를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어설픈 접근과 말뿐인 가벼운 설명으로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많은 설명 없이 “파주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한마디면 충분하지만, 일반인에 이주민이었던 우리는 더 많은 말과 에너지가 필요했다.

마을에서 인사는 중요하다

기자단 중 한 분이 평소 인사를 참 잘했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인사한다고 했다. 그 인사 덕분에 귀중한 기록을 얻게 되었다. 인사 나누던 동네 분에게 마을 이야기를 물어본 게 인연이 되어 수집하게 된 귀중한 자료가 있다. 1950년생 이재식 씨는 교하면 문발리에서 선대부터 계속 살아온 교하 토박이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그는 할머니 장례를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전통 장례식으로 치렀고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남겼다. 마을에서 치러진 마지막 전통장례식이라고 했다. 30년이 지난 교하의 풍경도 담겨 있다. 영상을 보면 상여를 짊어진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거나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상주나 동네 사람들이 상여의 새끼줄에 돈을 꽂아 준다. 망자의 혼을 달래주는 노잣돈으로 장례식 이후 마을 공동 기금으로 썼다고 한다.

기억의 장소를 찾다

청석초등학교는 1931년 개교한 학교로, 교하 주민들의 기억 장소이기도 하다. 청석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기자단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지역 출신인 용을미 교장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구술 대신 간단한 취재만 가능했다. 학교 역사와 사진을 수집했다.

원래 다울동에 위치했던 교하성당은 국내에서 교회 건축가로 불리는 김영섭 건축가에 의해 처음 설계되었다. 전통의 재해석이라 평가되는 건축물로 한옥의 정취와 구조를 현대건축으로 잘 녹여냈다.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성당 건축물이었지만 운정 3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하성당이 헐렸다. 성당 서쪽에 새로 생길 8차선 도로에 대비 소음 차단을 위해 8m 높이의 돌담을 세우는 등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멋진 건축물로 종교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지금은 헐리고 없어졌다. 새로운 교하성당은 다소 평범한 모

습으로 동패동에 새로 지어졌다. 옛 교하성당을 기억하고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교하 아카이빙 히스토리핀에 사진을 올릴 첫 번째 장소로 이곳을 꼽았다.

이 외에 히스토리핀에 올릴 장소로 신도시 개발 전 다울리 자연부락의 정자나무인 물푸레나무가 있었다.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베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주민들의 물푸레나무 지키 운동이 펼쳐져 경기도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되었다. 덕분에 아파트 단지 설계 계획이 변경 되고 물푸레나무는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관련해 몇 가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지역 주민과 기록으로 만나다: 김현득 할아버지

“옛 교하지도를 함께 보며 심학, 석곶, 와동, 그다음에 고봉산이 나오는데… 지금 위치가 … 출판단지 위치가 이쯤 되요. 출판단지 이채 쇼핑몰 있는 곳이 석곶나루 쪼미예요. 옛날에는 전부 강이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추적을 해서 옛날 왜정 때 자료를 구해 가지고 KBS에서 조사 중이에요. 지도에서 김포 북쪽 끄트머리를 가리키며 여기가 통진이니가 나가면 강화도가 돼. 연평도에서 배가 한강까지 다 올라갔어. 옛날에 북한 측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를 준설을 해서 개발하고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배가 한 척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간만의 차가 커. 그래서 못 들어오고, 이쪽을 삼각지라고 해. 영어로 하면 델타 지역. 여기서 북한까지 거리가 불과 8킬로 밖에 안돼. 북한에서는 남한과 면한 자기 지역을 관산반도라 그래. 여기서 물때가 흘러서 서울 마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문발에 고관대작이 많이 살았다고 해. 심지어 교하중학교 있는 데에는 윤원영이 정남정이 산소가 있어요. 강의 교통을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었어요. 그런데 철도가 생기면서 여기가 점점 퇴색해 버렸죠. 여기 물이 들어올 때 심학산 꼭대기에서 보면, 날이 좋을 때는 개성 송악산까지 보였다고. 옛날에는 나룻배가 김포까지 왔다 갔다 했어. 이 지역에서 인물이라고 하



구술 진행 중인 김현득 할아버지

면 누가 있냐면 최창섭 씨라고 있어. 고종 황제 시절 독립운동을 했던 분. 또 청석이라
는 데를 가면, 최경창 씨가… 거기 홍랑 시비가 있어요.”

토박이 원주민의 구술채록을 통해 교하의 생생한 옛 모습을 들었다. 교하 아카이브를 통
해 사람들의 기억과 구술이 곧 책이 되는 휴먼 라이브러리로 김현득 할아버지를 발굴할 수
있었다.

지도로 기록하는 교하 아카이브

우리는 그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도시 형성 이전 마을 주민의 일상사에 대한 구술을 접했고, 마을의 옛 자료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신기해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알기 쉽지 않던 교하지구의 긴 역사를 알게 되어 지역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주로 이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기록단은 인터뷰를 위해 만난 교하지구 토박이인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교하지역 기록 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카이빙 강의 후 주민들과의 대화나 워크숍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는 교하지구 기록의 필요를 모두 공감했다.

나는 마을 기록단이 모아온 자료를 정리해서 히스토리핀에 ‘교하 아카이빙’으로 해서 올리려고 준비했다. 국가기록원 ‘지적 아카이브’에 들어가 조선 후기 지도를 찾아 넣을 예정이었다. 신도시로 바뀌면서 개발로 인해 지형이 많이 변해 있었다.

교하 아카이브, 실패하다

교하 아카이브 사업은 사업과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 ① 구술채록 시 인터뷰 대상자와 라포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섰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② 이 사업은 주중 저녁에 주민 모임을 했는데, 마을 아카이브 사업의 참여자 중 직장을 다니는 이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자 A 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며 저녁에 시간을 내는 것은 역시나 어려운 일이었고, 막판에는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되었다. 아무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애정이 있다고 해도, 직장인들에게는 퇴근 후 마을 활동은 무리였다. ③ 히스토리핀을 이용하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나를 제외하고 마을 기록단 중 히스토리핀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 작업 과정에서 히스토리핀이

생각보다 불편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참여자들의 의지가 시들해졌다. 구술채록과 아카이브는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학습을 했지만, 히스토리핀에 대한 설명이나 워크숍은 없었다. ④ 결국 구술과 사진이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되지 않았다. ⑤ 나아가 당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활동이 여럿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활동가들을 소진해 이후 마을 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우리는 모두 마을 활동가다.

〈디어 교하〉 기자단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마을 기록단을 꾸렸다. 주로 교하 지역에 사는 주민이 다수였다. 마을 기록단의 연령과 성별을 보면, 40~5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남성이 한 명씩 참여했다. 사업 전체를 주도했던 A 씨는 50대 남성이었다. 반면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건 나를 비롯한 여성들이었다. A 씨는 주부들이 낮에도 활동할 수 있고, 이미 주민들과 친밀감을 쌓고 있어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기 쉽다고 했다. 실제로 〈디어 교하〉 기자단에 속한 여성들은 프리랜서로 여러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도 겸하고 있는 슈퍼우먼들이었다. 이들은 지역 사회에도 관심이 많아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시간을 할애해 마을 잡지를 만들고 공동체를 꾸려 마을에서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는 마을 활동가들이었다. A 씨 표현이 거북했지만, 〈디어 교하〉 새내기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해 나는 지금도 후회한다.

작고 소중한 성과

2018년 교하 히스토리핀 사업 자체는 성공적이지 않았으나, 이 활동 덕분에 이후 다른 성과를 가져왔다. 〈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은 당시 조사와 취재, 인터뷰를 통해 얻은 성과를 〈디어

교하> 5호 2018년 12월와 <우리 동네 아는 사람> 2019년 12월으로 남겼다.

① 김지하마을 기록단 ▶ 식당 ‘할머니묵집’을 운영하는 교하 원주민 김현득 어르신 인터뷰

▶ <디어 교하> 5호 2018년 12월에 실음

② 박경희마을 기록단 ▶ 사라진 옛 교하성당 자료 조사, 취재

▶ <디어 교하> 5호 2018년 12월에 실음

③ 이정은마을 기록단 ▶ 교하 원주민 이재식 어르신 접촉 시도, 구술 인터뷰 실패

▶ 1년 뒤, 다시 구술 인터뷰 시도, 인터뷰 성공

▶ <우리 동네 아는 사람>에 실음

이 외에도 예상치 못했던 외부 효과도 발생했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와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 아카이브 활동이 파주시에 알려져 파주시에 민간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교하 문발동의 마을 커뮤니티 센터인 ‘마당’과 식당 ‘손수’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파주시장과 교하 주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아카이브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주민 간담회 직후 마을에서는 이른바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마을 아카이브 사업을 지원할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그렇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대신 2019년 파주중앙도서관에 기록팀이 신설되었다. 이는 기대를 품었던 마을 주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2018

교하 아카이브

- 7월 1개월 사업 주제 회의 및 일정 확인
- 8월 29일 강의 1_손동유 기록학 교수 교하도서관 2층 강의실, 19:30
- 9월 05일 강의 2_전미정 기억발전소 대표 교하도서관 2층 강의실, 19:30
- 9월 12일 강의 3_박채란 작가, 구술채록 교하도서관 2층 강의실, 19:30
- 9월~사업 종료 마을 기록단 활동 시작. 2주에 한 번씩 모임.
- 9월~10월 말 구술채록 및 사진 수집
- 11월 1개월 히스토리핀을 활용한 수집 사진 업로드 및 관리 운영
- 11월 말 사업 종료



Part

4

우리 동네 아는 사람

이동구*

*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동네와 이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도서관과 동네 책방을 기웃거리다 찜오책방을 알게 되었고, <디어 교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팔자에 없던 '기자'노릇을 하면서 초보 동네 주민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현재는 찜오책방 앞에서 막걸리 공방을 운영하면서 동네 양조장을 만들 궁리로 조금 바쁘다.

‘우리 동네 아는 사람’ 그 시작

〈디어 교하〉는 계간지이지만 해마다 한 번은 독특한 활동을 한다. 비슷비슷한 동네 이야기를 매번 신다보니 소재가 고갈될 수도 있겠고, 뭔가 색다른 일을 해 보고 싶어하는 기자단의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 2018년에는 잡지 대신 〈교하산책지도〉라는 소책자를 발간했었다. 2019년 가을호 역시 일상적인 잡지가 아닌 인터뷰집을 내보기로 했다. 서너 페이지의 잡지 지면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웠던 우리 이웃들의 깊은 이야기를 담아보자는 뜻이 통했던 탓이다.

제작비용은 파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우리마을 문화밥상 차리기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우리마을 문화밥상 차리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꾸려나가는 문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이들이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어 교하〉팀은 ‘교하 사람들의 삶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집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채택된다.

교하는 2003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지역이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미 신도시였던 일산에서 교하로 온 사람들이고, 일부는 LG 디스플레이와의 관계로 교하에 터를 잡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주민들은 출판단지와 연을 맺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극히 일부는 신도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터전을 지켜오기도 했다.

2010년 전후로 운정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교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운정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그 빈 집은 어디에선가 교하를 찾아온 새로운 주민으로 채워진다. 간혹 새로 이사왔다며 떡을 돌리는 집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에 붙은 인테리어 안내공지를 통해 누군가가 떠나고 들어옴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늘 마주치고 눈인사를 하며 지나치는 사이지만 신도시,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이 설정해 놓은 익명의 벽을 허물기란 쉽지 않다.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이하 우동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자 하는 자그마한 노력이었다.

다양하고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을 좀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한두 컷의 스냅샷이 아닌, 감자줄기를 캐내듯 시간의 흐름이 담긴 컨텍스트를 뽑아내 보고 싶었다. 각양각색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교하라는 이곳은 어떤 매듭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매듭이 서로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구술생애사’라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필연이든 우연이든 우리 이웃 각자의 삶의 한순간이 지금 교하라는 공간에 투영된다. 그 순간은 순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의 한 점일 뿐,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가게 된다. 이런 삶의 궤적들이 흐르고 흐르다 교하라는 한 공간에 모여서 만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보고자 했다.

생애사 작업을 위한 준비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제외하면 <디어 교하> 기자단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책을 만드는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다만 글쓰기를 좋아하고, 주변에서 ‘글 좀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으쓱해왔을 뿐이다. 맘에 쏙 드는 가게를 찾아가서 사장님을 인터뷰하고 서너 페이지의 기사를 쓰는 건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맥락을 찾고, 현재와 연결시키는 작업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과는 또다른 능력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련, 굴곡진 삶의 궤적, 말하고 싶지 않은 갈등의 기억까지도 끌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면에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이를 위해 <디어 교하> ‘우동사’ 팀은 네 번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역 사회 아카이빙 작업 경험이 있는 실무자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첫 워크숍은 2019년 6월 10일이었다. 기록활동가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상일 <디어 교하> 편집장과 월롱 지역 마을 공동체 기록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디어 교하> 김지하 기자가 진행했다. 아카이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실무에서의 경험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전의 <디어 교하> 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기존의 공적인 아카이빙의 한계와 민간의 자발적인 아카이빙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6월 17일에는 윤택림 교수를 모시고 ‘공동체 아카이빙의 의미와 사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교수는 구술로 기록되는 역사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에서의 미시적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일깨워 주었다. 공동체 아카이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지배계층의 언어가 아닌 공동체 스스로의 언어로 기록된 아카이브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6월 24일은 ‘이번 생은 망원시장에서’에 작가로 참여했던 정숙희 작가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망원시장 상인들의 생애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인터뷰 요령, 기억 속에 숨어 있는 인터뷰이의 삶을 끌어내는 방법 등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7월 1일에는 파주 지역의 민간 기록을 수집하여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평화를 품은 집에서 마을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했던 명연파님을 통해 ‘파주 파평면 두포리의 60년대’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파주시 중앙도서관의 주민채록단의 일원인 윤지미님을 통해서 ‘파주 봉일천 지역의 기억을 찾아서’라는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누구를 인터뷰할까?

‘우동사’ 작업의 시작은 주변에 인터뷰를 해줄 만한 사람을 찾는 작업이었다. 히스토리핀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작업이 쉽지 않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기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 ‘쉽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인물’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었다. 일단 쉽게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 낸 뒤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순서를 정할지는 모여진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정은은 선대부터 교하에서 농사를 지어 오신 옆집의 어르신을 인터뷰하기로 했다. 이재식님은 교하면 문발리에서 태어난 이후 교하에서 살아오신 분이다. 신도시 이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오던 원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

서상일이 인터뷰한 박순철 화가는 교하 출신이 아니면서 98년 신도시 이전에 교하로 이주한 분이다. 부추밭만 있던 시절, 담배 사리 일산까지 나가야 했던 그의 이야기는 원주민과 신도시 거주자의 기억을 이어주는 교두보가 되기에 충분했다.

윤지원은 찜오 책방의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된 정덕현 작가를 인터뷰하기로 했다. 임상병리사, 숲해설가, 유투버, 작사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의 삶에 호기심을 느꼈다. 2000년 원당의 아파트를 떠나 경의선이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던 파주로 오게 된 그의 사연 역시 신도시 주민과는 조금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듯 했다.

김동희는 교하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일본어 수업 시간에 만났던 박경자 선생을 찾았다. 수업을 들으며 느꼈던 그의 ‘쿨함’과 ‘넉넉함’에 반한 게 그를 인터뷰하게 된 이유이다. 박선생은 2005년에 산남리로 이주를 했으니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하에서의 삶을 시작한 셈이다.

이동구는 클래식 기타를 공부하는 아내의 추천으로 기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수 선생을 인터뷰하기로 했다. 본인도 취미로 기타를 치고 아마추어 밴드를 이끌고 있던지라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궁금했을 법하다. 김진수 선생은 2008년, 신도시 초기에 교

하로 이주했다.

김지하는 오랫동안 만성신부전증을 앓으면서도 마을 활동에 열심인 임경호 셰프를 인터뷰하기로 했다. 임경호 셰프는 2012년 교하로 이사온 이후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 활동이 그의 투병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했다.

인터뷰할 대상을 정한 기자들은 각자 맡은 대상자를 찾아갔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 낱알이 파헤쳐보겠어’ 굳은 의지와, 가득 충전한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뷰, 만만한 게 아니더라

공동체 아카이브와 구술생애사를 이해하고자 마련한 강연회와 워크숍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갖추고 실전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 이후, 우리가 할 구술생애사 작업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는 교하에 사는 이유와 이곳에서의 꿈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각자 섭외한 인터뷰이에게 사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전달했다.

1.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이름, 나이, 하는 일, 거주장소, 거주 시기
2. 어떻게 해서 교하로 오게 되었는지요?
3. 교하에 어떤 인연들이 있으신지요?
4. 교하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요?

이렇게 주제만 전달한 상태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위의 내용은 누구나 평이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평범한 질문조차도 답변들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1~4까지의 기본질문에 덧붙여 담당자 각자 인터뷰 대상자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답변을 받았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답변 내용은 ‘우동사’ 각 인터뷰 처음에 게재되어 있으며 추가질문의 답변은 인터뷰 내용에 녹아들어 있다.

인터뷰는 모두 녹취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녹취한 내용을 풀어 정리하여 원고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두세 번 다시 방문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녹취한 내용을 글로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아무리 녹취를 했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정리가 쉽지 않음을 깨닫기도 했다. 녹취를 정리하는 작업은 가능한 빨라야 한다.

인터뷰 경험이 없기는 담당자나 대상자나 모두 마찬가지. 처음에는 초면의 서먹한 시간이 흐르지만 같은 동네에서 살아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니 이내 많은 이야기가 술술 풀려 나왔다. 인터뷰 목적과는 거리가 먼 서로의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 동네 마트에 대한 평가 및 추천,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 등등...

이정은과 이재식님의 인터뷰는 1991년에 이재식님이 찍어 두었던 본인 할머니의 장례식 비디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한 몸처럼 움직이던 마을 공동체가 개발로 인해 어떻게 망가지고 사라져야 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야기는 삭막해진 마을에 대한 아쉬움으로 마무리된다.

서상일은 박순철 화가가 교하까지 오게 된 그의 거의 모든 생애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화가가 되기까지,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생애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교하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조용한 동네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하에 대한 예찬으로 그의 인터뷰는 마무리된다.

윤지원은 출판단지 유수지 공원에 있는 탐조대에서 정덕현님을 인터뷰했다. 숲해설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게 된 계기, 파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이야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 등... 이들의 대화 속에는 출판단지, 심학산, 이웃들의 이야기 등 마을에 대한 애정이 담뿍 녹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김동희는 문발동의 한 카페에서 박경자 선생을 만났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의 교하 생활에 대해, 가사노동에 대해, 교하의 자연에 대해, 어린 시절의 생활에 대해 잔잔히 대화가 이어진다. 교하도서관에서 일본어 강의를 맡게 된 이야기는 우연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엮임을 명징하게 드러내준다.

김진수 기타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동구는 김선생이 학창시절에는 락밴드를 했었다는 이야기에 정신줄을 놓고는 70-80 락음악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페인 왕립 음악대학에서 유학까지 다녀 온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학창 시절에는 락커였다니. 도서관을 즐겨 찾고, 서울 나가기를 불편해하며 공릉천에서 낚시를 즐기는 김진수 선생의 이야기는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다가온다.

김지하는 임경호 셰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디어 아트는 생소한 첨단 예술분야에서 인생을 설계하던 인물이 신부전이라는 병과 어떻게 싸워 왔는지, 병으로 인해 달라진 그의 삶을 담아냈다. 기계공학도에서 미디어 아트 전문가로, 이제는 슬로우 푸드 전문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인터뷰를 모두 모아놓고 보니 자연스러운 타임라인이 형성되었다. 교하라는 신도시 지역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주민부터 신도시가 완성된 이후 이주한 주민까지 일련의 스펙트럼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목차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뭔가 허전해

9월 말, 인터뷰를 진행했던 여섯 분의 원고가 모두 모였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쉽사리 접하기 힘든 이웃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보니 제법 뼈대가 갖춰진 듯했다. 10월 7일,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원고가 모두 완성되었다. 인터뷰 내용을 꾸밀 수 있는 사진들도 여러 장 구해 여기저기 배치했다.

차근차근 읽다 보니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글들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우동사’ 멤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았다고 하면서도 결국 인터뷰를 한 대상을 살펴보면 농민, 화가, 작가, 기타리스트, 자연주의 셰프였다. 신도시 지역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이웃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이니 말이다. 뭔가 아쉬웠다.

“사진을 좀 더 넣어서 지면을 늘려볼까?”

“동네 사진들 찍어 놓은 것들 모아보자.”

“추가로 인터뷰를 더 할까?”

“이제 와서 추가하기엔 무리야.”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골조를 메꾸는 벽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벽체는 보편 혹은 좀 더 가까운 주변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기자단 모두 동네 사람들이잖아? 우리 이야기도 담아보자구.”

“기자단이 서로서로 인터뷰를 해서 추가해 볼까?”

“인터뷰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간단히 앙케이트를 만들어 넣는 건 어떨까?”

인터뷰를 위해 작성했던 사전질문들을 조금 다듬었다. 기자단 각자가 이웃들에게 궁금했던 내용들을 추렸다. 살아온 여정 보다는 현재 교하에서의 삶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실었다. 조금은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여덟 개를 추렸다. ‘우리 동네 아는 사람’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자들에게도 답변을 받았다. 답변은 되도록 2-300자 이내로 받았다. 10월 한 달 동안 이를 정리하여 각각의 인터뷰 중간에 삽입했다.

1. 교하파주로 오기 전에 어디에 살았나?
2. 그동안 몇 번 이사했나? 이사한 이유는?
3. 교하파주로 이사 오게 된 계기나 이유는?
4. 교하파주에서의 삶은 만족하나?
5. 교하파주에서 좋아하는 곳과 싫어하는 곳은?
6. 교하파주에서 주로 장을 보거나 쇼핑하는 곳은?
7. 교하파주에서 만난 동물은?
8. 교하파주에서 여가를 주로 즐기는 장소와 방법은?

묵직하게, 진솔하게, 긴 호흡으로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사이사이에 스타카토로 스쳐지나는 기자단의 양케이트는 책 전반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냈다. 무척이나 신선하고 독특한 리듬을. 진지한 인터뷰 사이사이 가볍게 혹은 수다스럽게 중간중간 끼어드는 기자단의 질문과 응답은 잠시 시선을 쉬어갈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해냈다. 결과적으로 자칫 평면적일 수 있었던 ‘우동사’는 기자단 인터뷰로 인해 입체적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된 듯하다.

또한 이웃들이 찍어 놓았던 우리 동네 이곳저곳의 사진들을 모아 넣고 보니 좀 더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현실감이 높아진 듯하다.

책이 나왔다

10월에 인터뷰 원고 및 양케이드 정리가 마무리되어 11월에는 편집 작업에 들어갔다. 오탈자를 잡고, 문맥을 다듬다보니 11월 말에야 인쇄 보낼 편집본이 완성되었다. 디자이너의 노력 덕분에 11월 말까지 표지 디자인까지 마치고 12월 초 인쇄소로 원고가 전달된다. 인쇄 과정에서

도 꼼꼼하게 감리를 거쳐 드디어 12월 14일 줌오프 책방에 ‘우동사’가 입고된다.

〈디어 교하〉는 A4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판형이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잡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게다가 전면이 칼라로 인쇄되어 사진을 돋보이게 한다. 단행본으로 엮인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은 일반적인 신국판 보다 약간 작은 판형 140mm x 210mm이다. 172페이지, 애초에 생각했던 분량보다 훨씬 두툼하게 나왔다. 〈디어 교하〉와 비교하면 반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담한 크기. 깔끔한 일러스트로 디자인된 표지와 색지로 구분된 각각의 인터뷰,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사진자료 때문인지 파일로 보던 원고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책이다. 10여년에 걸친 교하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 있는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은 짙막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는 그간의 잡지와는 확연히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책이 나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기자단은 서둘러 〈디어 교하〉 배포처를 중심으로 배포를 했다. ‘〈디어 교하〉에서 이런 책도 만들었냐?’는 감탄을 들으며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걸까?’ 싶기도 했다.

출간기념회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이 나온 후 책을 읽고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좋은 일 하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같은 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울림을 주는 모양이다.

교하도서관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여섯 분의 이웃을 모시고 뒷풀이를 했다. 책으로 먼저 만났던 이웃들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서로를 맞이했고, 이웃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수다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서상일의 진행으로 인터뷰 대상자들 한 명씩 인상적이었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책에는 미처 신지 못했던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감자줄기

처럼 풀려 나왔다.

이재식 선생은 작은 농촌마을 시절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주셨다. 마을에서 초상을 치르던 모습, 마을 기금에 대한 이야기,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공동체적인 모습들... 불과 3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은 상상조차 힘든 이야기들을 듣다보니 우리가 얼마나 급변하는 세월을 살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박순철 선생이 어린 시절 함양 오지마을에서 그림을 공부했던 이야기도 듣고, 정덕현 선생이 작사한 ‘동자꽃’이라는 노래도 감상하고, 김진수 선생이 교하에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해 준 ‘아라비아 기상곡’도 들으면서 즐겁게 출간기념회를 진행했다.

날이 풀리고 꽃이 피면 모두 모여 숲해설가로 활동했던 정덕현 선생을 따라 동네 숲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임은 미뤄졌다. 하지만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새롭게 사귀게 된 이웃은 여전히 나처럼, 또한 그들처럼 교하에서 살아가고 있으리라.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의 성과와 한계

‘우동사’는 교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민간 아카이빙 활동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구술생애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하라는 신개발지역의 시간적, 공간적 영역을 확장시켰다. 대대로 교하에서 삶을 이어오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식 속의 교하는 30년 전으로 확장되었다. 지금은 교하라는 한정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서울, 대구, 의정부, 진주, 함양, 심지어 스페인까지 이어져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하라는 지역이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근대사라는 시공간을 아우르는 역사의 한 단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처럼 확장된 시공간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수준을 높여준다. 누구나 저마다의 역

사와 사연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마주치는 이웃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마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역 주민 개인의 생애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관 주도의 기록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기관은 각자의 존립 목적 및 설립 가치에 따라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의 대상 역시 공동체 외부로 드러나는 시민단체, 정치단체의 활동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이웃의 기록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기존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디어 교하>팀에게는 구술생애사라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좀 더 전문적인 시민 아키비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인근에 운정 신도시가 들어서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와중에 민간 아카이빙의 필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동사’는 전형적인 민간 아카이빙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생애를 시계열적으로 탐구하는 작업과 다수의 주민에게 양케이트를 받아 전반적인 외관을 그려 볼 수 있었던 책의 구성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였고 일정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같은 대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풍부하게 삽입되어 있는 마을 곳곳의 사진과 참여한 인물들의 사진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기록을 유연하게, 혹은 친근하게 만들어 주는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반면 같은 맥락에서 ‘우동사’의 한계 또한 살펴 볼 수 있다. 우리가 다루었던 인터뷰 대상들 모두 저마다의 생애를 살아왔고, 이런 각각의 생애들이 모여 교하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여섯 명의 생애만으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좀 더 많은 생애를 찾아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살아 있는 아카이빙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정된 인원으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는다.

또한 좀 더 깊숙히 인터뷰 대상자의 삶에 파고들 수도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 한 번 혹은 두

번의 인터뷰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지금 생은 망원시장’의 경우처럼 밀착해서 원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끌어낼만한 시간적 여유, 인터뷰 기술이 모자랐다는 반성을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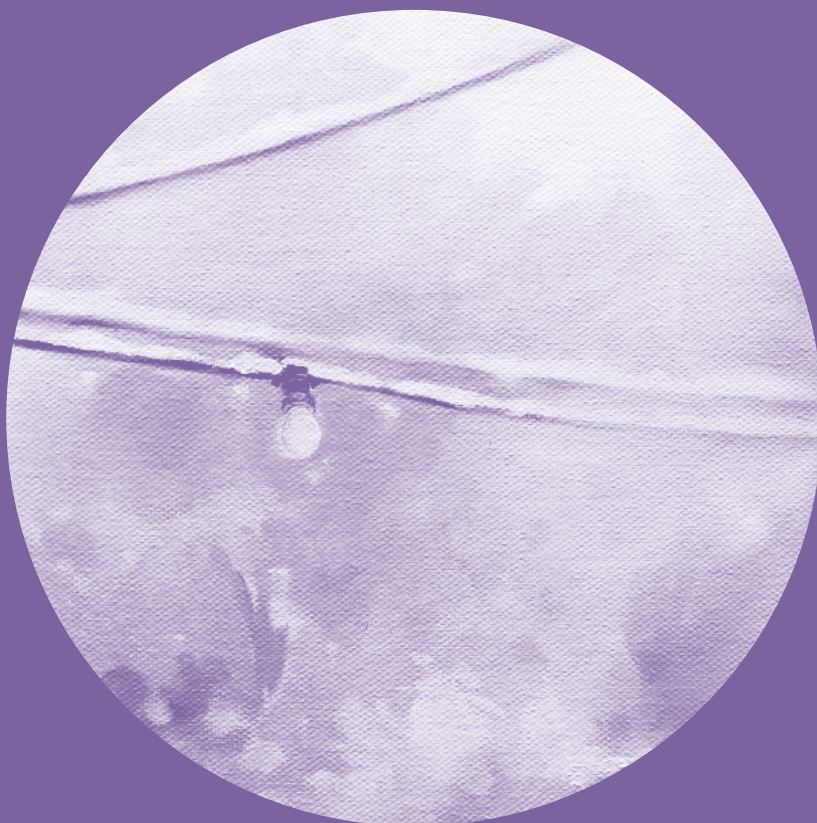
양케이트 역시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설계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역시 한계로 지적해야 하겠다. 미시적인 개인사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적인 틀거리를 그려보고자 했으나 양케이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질문들이 일관된 맥락을 형성하기엔 고민이 부족했다. 또한 설문조사 방법론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다고 본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마음속 뿌듯함이 크다. <우리 동네 아는 사람> 덕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지역에서 개인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그간 정부 통계 자료로는 알 수 없던 교화에 사는 이들의 거주 및 이주 동기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동네 아는 사람〉 프로젝트

2019

- 01.22. 파주시 '우리마을 문화밥상 차리기' 사업 공모
- 01.31. 가칭 '교하 공동체 아카이빙 -교하 사람들의 삶과 꿈'사업 신청서 제출
- 03.25. 가칭 '교하 공동체 아카이빙 -교하 사람들의 삶과 꿈'사업 선정
- 06.10. 서상일, 김지하 워크샵
- 06.17. 윤택림 박사 세미나
- 06.24. 정숙희 작가 세미나
- 07.01. 파주 민간 아카이빙 활동가 세미나
- 07.~09. 인터뷰 및 원고 작성
- 09.30. 원고 마감
- 10.07. 2차 원고 마감, 양케이트 추진 결정
- 11.26. 1교 완성
- 11.27. 표지 디자인 확정
- 11.28. '우리동네 아는 사람' 제목 확정
- 11.29. 2교 완성
- 12.03. 대상자 컨펌 진행
- 12.04. 최종 원고 확정
- 12.05. 인쇄 발주
- 12.10. 표지 인쇄 검수 및 감리
- 12.14. '우동사' 찜오책방 입고
- 12.16. 배포 완료
- 12.30. '우동사' 출간기념회 준비
- 2020.01.17. '우동사' 출간 기념회 오전 11시, 교하도서관 3층 브라우징룸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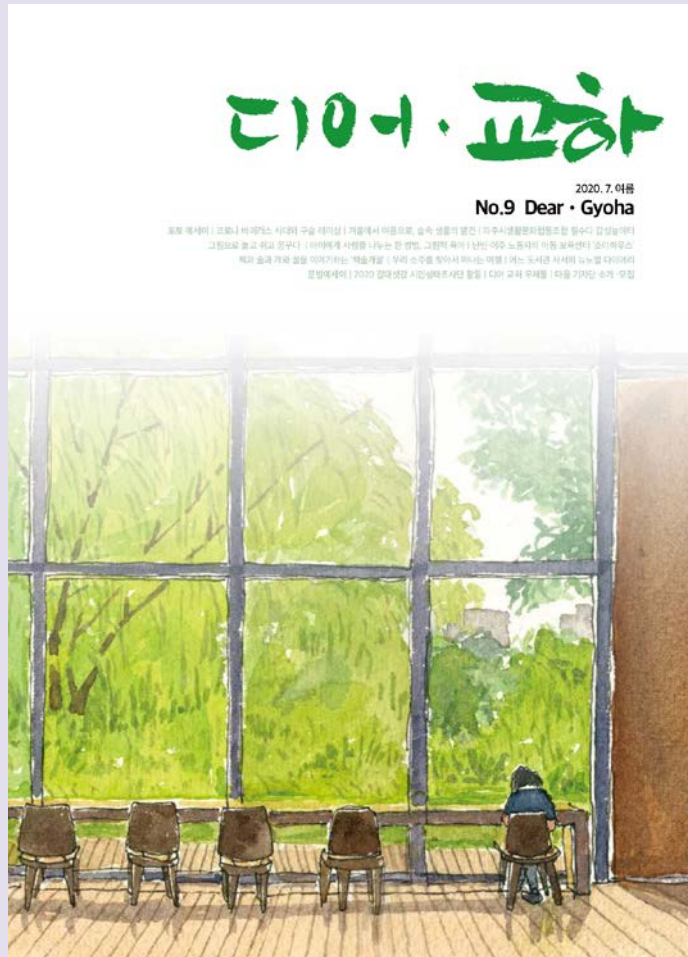
5

마을 잡지 <디어 교하> 기록 생산

박인애*

* 2005년부터 교하신도시 문발동에 입주하여 2020년 현재까지 마을살이를 하고 있다. 교하의 자연환경과 도서관과 이웃과 어우러져 자전거 타기, 시집 읽기, 심학산 오르기, 숲속 길 산책, 노래 부르기, 텃밭 가꾸기, 글쓰기 워크숍, <디어 교하>기자단을 하며 지낸다. 독서논술지도교사였으며, 현재는 시인, 구름바다 출판사 대표로 산다.

〈디어 교하〉 No.1 ~ No.9 - 기록 생산



- No.1 2017. 8. 여름
- No.2 2017.12. 겨울
- No.3 2018.3. 봄
- No.4 2018.7. 여름
- No.5 2018.12. 겨울
- No.6 2019.3. 봄
- No.7 2019.7. 여름
- No.8 2020.1. 겨울
- No.9 2020.7. 여름

편집 소크라

디자인 다숨

표지 캘리그래피 뽻셈

그림 마을 화가 (장순일, 백진숙, 라일라, 박재준, 윤앤윤, 신영)

기자단 시시, 소크라, 쑤쑤, 그레이스, 다숨, 이마담, 프리인애, 란, 뽻셈, 이콜, 수련화, 이지작가, 동글이, 슈룸, 윤슬, 감돌, 흑진주, 마음, 손수리노, 여행자, 곰토미, 시월나비, 차미짱, 형진형, 코멘터_리, 베히이

펴낸 곳 〈디어 교하〉 프로젝트, 마을발전소

표지 그림

표지 그림 마을 화가들 장순일, 백진숙, 라일라, 박재준, 윤앤윤, 신영의 작품, 캘리그래피 뽀샘

우리 마을에 살았거나 마을과 인연이 닿은 화가들이 매 호마다 표지그림을 그려 보내주었다. 세밀화가 장순일 화가는 1호 표지에 출판도시 지혜의 숲 풍경을 색연필의 질감으로 따뜻하게 그렸다. 문발동에서 ‘산책하는 M’ 화실을 꾸렸던 백진숙 동양화가는 2, 3호 표지에 겨울과 봄의 풍경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을 보냈다. 출판도시에서 화실을 운영하는 라일라 서양화가는 4, 5호 여름과 겨울 이미지를 산뜻한 수채화로 그려줬다. 이웃 운정 도시농부 마을에 사는 박재준 일러스트는 6, 7호 봄과 여름 이미지를 컬러링 일러스트로 보내줬다. 문발동에 새로 문을 연 화실 윤앤윤 화가로부터 8호 겨울 함박눈과 크리스마스 트리 그림을 받아서 실었다. 파주출판도시에서 스케치북+ 카페를 운영하는 서양화가 신영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지향 실내 유리창으로 들어온 초록 여름 풍경을 담은 수채화를 보내왔다. 표지의 <디어 교하> 캘리그래피는 ‘커피발전소 in 교하’ 소장 뽀샘이 썼다.

<디어 교하> 표지에 마을화가들의 작품이 실려서 마을잡지의 품격을 한층 살렸다. 재생지 그린 라이트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B4 크기의 넓은 판형은 화가들의 그림을 싣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디어 교하>의 세련된 친근감을 살리기 위하여 인쇄비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이렇게 표지 그림은 아날로그적 감성과 현대적 감각의 신선한 마을 잡지 <디어 교하>로 살아났다.

포토 에세이

커피발전소 앞 우산들시시, 9단지 맞은편 버스 정류장이마담, 운정3지구 공사현장-낯은 신도시의
꿈이마담, 바퀴에 바람이 빠진 어린이 자전거이지작가, 교하의 겨울철새들이지작가, 어린 두 손에 담긴
봄꽃 선물이지작가, 분수대에서 노는 아이들이지작가, 겨울이 씩워준 하얀 눈 모자이지작가, 어머니는
아이스크림이 싫다고 하셨어이지작가

포토 에세이는 <디어 교하> 표지를 펼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지면이다. 큼지막하게 담긴
사진 한 장과 그 밑에 짧은 단상의 글을 읽고 나면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작가가 사진으로 호출한 장면은 늘 보던 익숙한 공간의 어
떤 상황인데 다르게 보인다. 굳었던 뇌가 순간 말랑해지는 기분이 든다. 혹은 잠시 깊이 생각
해 보게 한다. 포토 에세이는 <디어 교하>의 새로운 이미지를 관통한다.



파주 교하의 공간과 인물

공간과 인물이 전하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마을은 사연이 풍성해졌다. 무심히 지나쳤던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 보게 되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디어 교하> 잡지에서 봤어요.” 인터뷰 기사에 실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자신을 알아본 것에 대해 신기하게 여겼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보며 모두들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골목 공방 공간



도예공방 ‘작’/박준범 도예가쏘크라, 미술공방 ‘골목대장’/햄스터 미술선생님이지작가, 문발동 골목 공방들/‘필수다 감성놀이터’, 원예 공방 ‘플립’, 판화 공방 ‘프리다의 눈썹’, 업사이클링 팝업북 공방 ‘팝업놀이터’, 시각아트 워크 공방 ‘파파워크룸’, 요리 공방 ‘파주치킨’, 베이커리 공방 ‘파스텔’, 수제화본 도자기 공방 ‘Tie공방’, 바느질 공방 ‘작업실 수.경’, 그림 공방 ‘윤앤윤’, 나무 공방 ‘옹이와 결’, 가죽 공방 ‘스틸 리더 워크’, 떡케이크 공방 ‘로제뜨케이크’, 바느질 공방 ‘다소니’시시, 이마담, 미술공방 ‘자기만의 방’/이윤주시시

이 동네 골목을 공방 거리로 호명하게 된 시작점은 도예공방 ‘작’이었다. 부부 도예가가 문을 연 공방에서 도예 수업이 이루어지며 도자기를 굽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후로 냅킨아트 공방, 목 공방, 가죽 공방, 그림 공방, 바느질 공방들이 문을 열면서 어느덧 이 마을은 골목 공방을 형성했다. 약간 구부러진 길의 골목들마다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군데군데 문을 열고 있다. 공방들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성실히 작업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외진 공방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공방들이 늘어났으며 새로 입점하는 공방들도 생겨났다. <디어 교하>는 숨어 있는 공방들을 잡지에 소개했다. 교하 도서관 지하 갤러리에 상설 전시를 하고 천 권의 잡지를 배포하여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다.

커뮤니티, 문화 공간

교하도서관/전은지 사서이마담, 이음오케스트라/오승남 단장 목사그레이스, 교하청소년 문화의 집/구두회 팀장그레이스, 마당 이야기프리인애, 우리 동네 극장 명필름 아트센터윤슬, 파주 어린이 천문대동글이, 조이하우스/이인자 사모그레이스

남녀노소 모두 모여 문화를 즐기는 공간들을 소개했다.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



간은 교하도서관이다. 교하도서관을 통해 마을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교하도서관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면서 우리 마을이 자랑할 만한 최고의 공간이다. 주민들에게 볼 거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디어 교하> 잡지는 문화 공간 속의 인물을 인터뷰했다. 교하도서관 전은지 사서, 어린이 악단 ‘이음오케스트라’를 이끈 오승남 단장, 어린이 천문대 실무자 윤소영 팀장, 청소년들의 쉼터 교하청소년 문화의 집 구두회 팀장을 잡지에 담아냈다. 또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당’과 마을 대표 극장 ‘명필름 아트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함을 소개했다. 난민, 이주노동자의 아동 보육센터 ‘조이하우스’를 만든 디자인교회 이인자 사모를 통해 파주에 함께 살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카페 공간

굳잡 굳커피/카페협동조합원들다솜, 루버월/김성수 사장다솜, 헤몽페네 카페/김성희 화가 부부다솜

요즘은 대형 브랜드 카페 못지않게 동네마다 작은 카페들이 유행하는 추세다. <디어 교하>에서는 독특한 스토리가 담긴 카페들만을 골라 인터뷰했다. 주부들이 십시일반으로 카페 협동조합을 만들어 열게 된 ‘굳잡, 굳커피’는 마을 살이의 모범 공간이라 할 만하다. 부부가 노후를 설계하다가 우리 마을 노을빛에 반하여 건물을 짓게 된 ‘루버월’은 세계적인 건축 잡지에 소개될 만큼 멋진 건축물을 자랑하는 카페다. 고양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화가부부가 함께 지은 ‘헤몽페네’ 카페는 아름다운 정원과 목공방을 겸하며 매달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어주고, 도토리 프리마켓을 열어 공예가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집 공간

문발동 다가구 빌라 세입자 / 이숙슈룹

사라진 공간

유리 성당으로 불리던 옛 교하성당흑진주, 세라스토리 의상실/김세라 의상디자이너다솜, 산책하는 m 화실/백진숙 화가시시, 커피발전소 IN 교하를 만든 책들뽀뽀 / 내 이름은 ‘손수’입니다손수리노

운정3지구 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유리건축물 ‘교하성당’이 철거되어 사라졌다. 장사가 잘 안



되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 인터뷰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진 곳도 있었다. 1호에 실린 ‘세라스토리’ 의상실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았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어 헛걸음을 하게 되었다. 결국 급한 사정이 생겨 ‘세라 스토리’는 문을 닫았다. ‘산책하는 m’ 화실도 인터뷰가 나간 뒤에 집안 사정으로 멀리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 문을 닫았다. 가장 안타까운 공간은 문발동 공방골목에 터줏대감처럼 굳건히 자리 잡았던 ‘커피발 전소 IN 교하’와 ‘손수’다. 사라진 공간 인터뷰에 실린 공간 이외에도 수많은 공간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굳건히 버티는 공간이 더 많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건디는 공간들을 보면 위태로우면서도 대견하다.

교하의 인물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현정시시, 교하9단지 주민/김성대 미술교사쓰크라, 유화컴퍼니/유화 대표그레이스, 제철소 1인출판사/김태형 대표이마담, 무구 꽃꽂이/이현주 플로리스트다솜, 서패리 심학산 도토리묵 음식점/김현득 어르신시시, 라라의 작업실/임소희 수공예작가다솜, 대성철물/전시형 사장슈름

교하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 등지를 틀며 살아간다. <디어 교하> 기자단은 기획회의를 통해 잡지에 실을 인물을 추천받는다. 주로 마을 살이를 하는 기자의 시선에 잡힌 특별한 인물을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하고 기사를 쓴다. 봄 호에 실릴 만한 인물로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두 학부모를 인터뷰한다든지 평범한 주민인데 마을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을 포착하여 담아낸다. 우리 마을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을 인터뷰하여 동네의 역사를 파고들었다. 다가구 세입자의 집 이야기,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대성철물 사장님, 1인 출판사 대표들, 플로리스트, 수공예 작가, 문화프로젝트 대표 등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물들을 잡지에 실었다.

건강한 마을 살이

동네 텃밭 놀이프리인애, 숲속길 산책수련화, 공릉천 자전거 라이딩프리인애, 걸어서 심학산 가는 길프리인애, 산책하는 마음빨셈, 아이와 함께 동그라미 숲 놀이터/이혜란 생태강사그레이스, 도서관 앞집에서 10년 살기동글이, 코로나, 치매, 우울한 마을 산책프리인애

<디어 교하>는 교하도서관과 교하의 문화 공간,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사람살이를

담았다. ‘교하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다. 교하에 산다면 반드시 가야할 첫 번째 장소는 교하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와 만남의 정서적 공간이다. <디어 교하> 잡지는 도서관에서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가져간다. 도서관 지하 갤러리에서 <디어 교하>를 상설 전시한다. 다음으로 교하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찾아간다. 도서관 뒤편의 숲속산책길, 심학산 가는 길, 공릉천 자전거 라이딩 길을 달리다 보면 이 마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는 집을 짓지 않은 빈 땅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땅을 빌려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간다. 봄에 모종심고, 여름에 쌈채 뜯어 샐러드와 쌈을 해먹고, 감자,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다양한 농산물을 키워 먹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책과 자연을 벗 삼은 건강한 마을 살이를 <디어 교하>가 전한다. 반면 교하의 행복한 마을살이에 폭 빠져 교하예찬 에세이만을 썼던 <디어 교하>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봄 호 잡지를 낼 수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쓰고 우울한 마을 산책길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동물 살이, 식물 살이

우리 동네 짐승들 버찌쑈쑈, 길에서 만나는 나물 이야기쑈쑈, 지하주차장의 고양이, 도시에서 살아가기동글이, 탐조, 탐닉하다마음, 숲길을 거닐며 못 생명을 만나다시월나비, 2020 갈대샛강 시민생태조사단 활동베짱이

〈디어 교하〉잡지를 펼치면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개와 고양이와 새와 곤충, 식물들의 사생활도 만날 수 있다. 잡지에 실린 동물과 식물 이야기를 통해 공존하는 생명체들의 아름다움과 희귀 생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샛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길에서 사는 고양이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텃새와 철새들, 숲속의 애벌레와 곤충들, 샛강의 물고기들, 들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인간의 울타리 안팎에서 서로 이웃이 되었다. 〈디어 교하〉는 이 땅의 다양한 생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놀이와 모임, 창작 활동

전래놀이 모임쑈쑈, 우리 동네 애니 탐험대수선화, 몸살림 운동쑈쑈, 배워봅시다. 야생화 자수쑈쑈, 동양고전공부 모임목요공방카페/이봉호 철학자쑈크라, 여유충전소/파파살롱이지작가, 마을드라마 〈문, 발리에서 생긴 일〉마음, 문산 도서관 사진, 글쓰기 워크숍시시, 마을에서 나도 역사동화 작가되기 프리인애, 합창단 ‘파노라마’가 선물한 ‘나의 노래’프리인애, 파주시생활문화협동조합 필수다 감성놀이터쑈크라, 책술개굴 유튜브 채널형진형.

교하 마을에는 수백 개의 다양한 빛깔의 모임과 창작 놀이 모임이 활동 중이다. 〈디어 교하〉가 각종 놀이와 모임을 탐방하여 공부하고 놀이하고 나누는 신명나는 마을 살이를 보여주었

다. 마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려고 몇몇 엄마들이 모여 전래놀이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마을이 살 수 있다. 어른들이 즐거우면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어른들은 몸살림 운동으로 몸을 바로 잡고 고전 공부를 하고 합창 노래를 불렀다. 남자들이 작당하여 여유충전소 모임을 만들었고 ‘파파살롱’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여 남는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고 급기야 마을에서 생긴 일을 소재로 하여 마을 드라마를 만들었다. 파주의 근현대사 역사공부를 바탕으로 하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일제강점기 역사동화를 써서 동화책을 출판했다. <디어 교하> 같은 마을 잡지를 문산 지역에서도 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디어 교하> 기자단이 문산 도서관에 워크숍을 열었다. 그 결과 도서관 워크숍에 나왔던 분들이 마을 기자단을 꾸려 <우리 동네 문산> 잡지를 펴낼 수 있게 되었다.



교하의 역사

기억의 공동체를 찾아서/ 교하 3.1 만세 독립운동가 임명애소크라, 교하 9단지 물푸레 나무소크라, 흥랑
묘지 앞에서 뿔버들 시를 떠올리며소크라, 파주 근현대 역사의 길프라인애, 교하마을 이름 이야기깎뿔

<디어 교하> 잡지는 수백 년 전부터 마을과 함께 살아온 나무와 인물들이 지나온 역사의 흔
적들을 더듬어 지금 여기에 알렸다. 교하의 역사를 알면 교하에 살아 있음이 자랑스러워진다.
교하초등학교에서 파주의 3.1 독립 만세운동을 펼쳤던 임명애 독립지사를 <디어 교하> 잡지에
실었다. 그 후 영화 <항거>에서 임명애 독립지사가 유관순 독립열사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듬해에 만세운동을 벌였던 교하초등학교에 3.1운동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급속히 사라져가는 근현대 역사유적들을 되살리는 작업을
<디어 교하>가 해냈다. 최근에 마을에서 운정3지구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하지역 이름을 버리
고 운정3동으로 갈아타자는 서명이 이뤄졌다고 한다. ‘교하’는 매우 오래 된 지명이다. 한강과
임진강 두 물길이 하나로 합하여 친해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 ‘교하’다. <디어 교하>는
역사를 통해 교하 마을의 소중함을 마을사람들과 공유했다.



문화, 예술

시험을 망친 딸에게 아빠가 보내는 편지쓰크라, 마을에서 만나는 시 한편프리인애, 차 한 잔의 여유수련화, 마을버스에서 사람들이 까르르 웃던 일여행자, 파주 사는 니나나나 사연 하나짬윤슬, 사진을 두고 대화를 나누다/‘PATI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하재민 학생쓰크라, ‘파티PATI’에서 여는 파주자유음악잔치쓰크라, 대안공간 짓거리/프로젝트 제로 안소영 대표슈름, 니카미 유리애의 그림책 육아차미짬, 우리 소주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동글이, 어느 도서관 사서의 뉴노멀 다이어리코멘터리

〈디어 교하〉는 문화와 예술에 관한 기사와 글들을 실었다. 편지 한 장, 시 한 편,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마을에서 생긴 사연을 실어 웃음을 선사했다.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월간지 〈멋멋〉을 통해 사물에 관심을 갖는 사진에 대한 대화를 실었다. 파티에서 여는 파주자유음악잔치는 실험음악 축제의 장이다. 대안공간 짓거리에서는 행위 예술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간다. 니카미 유리애는 두 딸의 엄마이다. 짬오책방 조합원 차미짬은 그림책 서가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번역된 일본 그림책, 일본에서 번역된 한국 그림책 등을 소개하며 그림책 육아 유튜브를 한다. 우리술연구소@문발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주의 내력을 소개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교하 도서관 사서의 일상을 실었다.

〈디어 교하〉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 예술 기사들을 실어냄으로써 마을을 생각하고 마을에서 즐기는 잡지가 되었다.



교하 칼럼

차가 점령한 거리, 아이들 놀이터가 될 수 없을까?쓰크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마당과 골목수련화,
아파트 가격 전쟁 속에 사라져가는 역사동굴이

〈디어 교하〉에서는 마을 골목이 아이들 놀이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가 점령한 골목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마을을 더욱 안전하고 살맛나는 공간으로 가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아파트 가격 경쟁 속에서 교하지구를 운정 신도시 3지구라는 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자본 중심의 신도시 브랜드 열풍으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지워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목소리를 실었다.



다양한 방식의 책 소개

북 에세이, 도서 리뷰, 이웃출판사 책 소개, 옆집에서 차려준 책 밥상, 내 맘대로 뽑은 올해의 책 밥상, 북 숲 스토리, 북 에세이, 만화, 다큐 리뷰, 이콜의 발전소 책방.5 일기

<디어 교하> 2호부터 다양한 책 소개가 시작되었다. ‘발전소 책방.5 협동조합’의 소식지를 <디어 교하>와 함께 엮어서 잡지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그 후부터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풍성해졌다.



후기 / 뒤표지



편집 후기, <디어 교하> 우체통, <디어 교하> 기자단 소개 / 잡지 후원
명단, 배포처 광고

1호의 마지막 장에는 <디어 교하> 프로젝트를 이끈 두 작가 박채란 동화작가, 김지하 사진작가의 편집후기와 사진들이 실렸다. 첫 잡지를 만든 결과 반응들이 뜨거웠다. 2호의 마지막 장에는 <디어 교하> 우체통과 기자단 소개를 실었다. 우체통 코너에는 1호를 만든 기자들과 주민들의 소감을 담았다. 기자단 소개는 기자들의 캐리커처가 실렸다. 이후 잡지들마다 마지막 장에 우체통과 <디어 교하> 기자단 사진이나 그림들이 들어갔다. 우체통을 통해 마을잡지의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뒤표지에는 후원한 분들의 이름을 넣었고, 후원계좌를 실었다. <디어 교하>를 받아볼 수 있는 배포처도 올렸다. 매호마다 이전 호에 실은 기사들에 대한 평이 담겼다. 잡지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많은 분들이 마을발전소 계좌로 작게나마 후원을 해주셨다. <디어 교하>를 물심양면 지원해 준 찜오책방 협동조합 덕분에 일정 부분은 파주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는 이웃들의 후원금으로 9호까지 발간했다.

<디어 교하> ‘우체통’을 통해 본 반응

<디어 교하> 창간호가 나간 이후, 2호부터는 잡지에 실린 사람들과 그 잡지를 읽은 사람들로 부터 글을 받아서 ‘우체통’ 코너에 실었다. 이 글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디어 교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디어 교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통과 즐거움과 자부심을 안겨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디어 교하〉 잡지에 실린 사람들 반응

〈디어 교하〉에 실린 인터뷰를 보고 도자기에 관심을 갖고 공방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멀리 금촌에서 전시장까지 찾아와 주신 분도 계셨죠. 동네 가게에서 잡지에서 보셨다면서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네시는 분도 계시고, 도예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새로운 작업의 에너지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디어 교하〉에 감사드립니다.

도예공방 작 박준범

〈디어 교하〉에 우리 카페가 소개되어 기쁨과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사를 보셨다면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손님도 계셔 행복한 마음입니다. 카페를 오픈할 때 처음 마음처럼 좋은 분들과 함께 교하 엄마들의 아지트가 되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잡군커피 박수옥

깨톡, 깨톡이 연달아 부른다. “우아, 샘 여기 교하도서관에 공부하러 왔는데 샘이 책에 나왔어요! 〈디어 교하〉예요. 싸인해 주세요” 하고 난리가 아니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디어 교하〉 보시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팩트(?)를 진심으로 쏟아놓는다. 〈디어 교하〉가 전하는 생생한 동네 이야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발전소가 분명하다. 소통과 관계결핍증후군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초콜릿! 〈디어 교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구두희

나는 매일 숲이 좌우로 펼쳐진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는다. 수차례 매일 걷는 길이지만 계절마다 하루해의 기울기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다채로움에 반하고, 그야말로 일상의 피곤함을 잊게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나만의 공간을 〈디어 교하〉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다. 페이지를 넘기니 반가운 이웃들이 정겨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재주의 향연이 펼쳐진다. 나만의 보물, 그리고 물랐던 보물들을 캐내어 온 동네가 함께 나누고 웃고 공유할 수 있는 〈디어 교하〉 참말 고맙다.

생강나무 이혜란

교하(두 물 만남)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디어 교하〉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어 교하〉 기자들이 모두 뛰어난 글 솜씨와 사진 솜씨를 지닌 것도 알게 되었고요. 교하 Go! 파주 Go!

루버월

교하에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된 지 5년째. 교하에 이렇게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지 몰랐어요. 〈디어 교하〉 덕분에 교하에서 영업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가치 있게 느껴지네요. 그저 작은 모임에 불과한 ‘여유충전소’라는 움직임에 보여주신 크나큰 관심과 격려, 응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디어 교하〉 파이팅!!!

파파쌀롱

창간호부터 꼭 지켜봐온 독자로서, 갈수록 단단해지는 <디어 교하>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꼭지는 ‘문발 에세이’와 ‘교하 9단지 물푸레나무’ 이야기였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잡지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소 김태형

나는 요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한다. 뒤돌아보니 아주 신기하게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만남이 있다. <디어 교하>와의 만남은 우연 같았는데, 점점 ‘아 이구나, 잘 만났네.’ 하고 박수가 절로 나온다. 그 만남이 진심으로 고맙고 따뜻하다. 그리고 이 <디어 교하>와의 만남으로 더 많은 이웃들의 모습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얼마 전 KBS <다큐3일>에 문발동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가족이 TV에 나온 느낌이었다. 이제 는 낯선 교하가 아닌 낯익은 교하 사람들이다.

해몽페네

“햄스터! 도서관에 있는 잡지에서 봤어~” “햄스터! 교하에 유명인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골목대장’이 <디어 교하>에 나온 걸 무척 신기해했다. 부끄럽다고는 했지

만, 사실 매우 뿌듯했고 참 좋았다. 교하로 이사 온 지 꽤 되었지만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 외에는 무심히 지나쳤는데, <디어 교하>에 실린 이후 우리 동네와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게 된다. 나에게 이런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디어 교하>와 관심을 보여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골목대장 햄스터

창간호부터 지켜보았던 <디어 교하>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운정 3지구 공사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하이지만, 부디 이 마을이 많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리 아파트와 버려진 논밭과 들풀과 비닐하우스가 함께 있는 황량하고도 이상한 풍경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 바람과는 반대로 풍경은 계속 더 빠르게 변하겠지만, 마을의 시간과 사람들을 기록하는 <디어 교하>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무구 작업실 이현주

차갑고도 포근하게 느껴졌던 작년 파주의 겨울에서부터, 봄에 만난 <디어 교하>와 함께한 ‘마을에서 예술하다’ 전시. 그리고 여름-겨울호 표지 그림을 그리며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파주의 계절은 천천히 흐르지만 더욱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파주를 더 따뜻하게 느끼도록 도와 주시는 <디어 교하> 감사드립니다. **리일라**

우리가 사는 마을은 이미 이웃이 사라지고 나만 남아 있는 마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난 <디어 교하>를 만드는 분들은 모두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다 진솔한 마을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 때론 무겁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디어 교하>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더군요. 앞으로 오래오래 더 많은 사랑도 받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어주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유화

따스함을 넘어 햇살이 더워지려던 봄에 만나 이렇게 녹음이 짙은 여름이 되어 후기로 인사를 나누니 새삼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되네요. 교하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디어 교하> 지면으로 철물점 사장님을 마주하고 반가워하는 저를 보며 동네사람 다 되었구나 싶었어요. 많은 이의 수고가 느껴지는 정성 그득한 잡지를 한장 한장 소중하게 읽다 보니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반가움을, 타 지역 분들에게 소개가 되는 별 거 아닌 듯 소중한 이 잡지가 어느 가게의 한 켠에 늘 일상처럼 계속 자리하고 지속되길 바랍니다

라라의 작업실 임소희

전에 몰랐는데 많이들 <디어 교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성철물에 오시는 분들마다 <디어 교하>에서 봤다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선반 망가져서 오신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하고요. 좋은 점은 <디어 교하>에서 대성철물을 알게 되어 주변 사람에게 소개도 해주시니까 고맙지요. 멀리서 와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에서 다 알고 얘기를 많이 하니깐 좋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래요. 책임감이 더 커지네요.

대성철물

교하에 벌써 5년째라 동네 구석구석 안다고 생각했는데, <디어 교하> 볼 때마다 동네가 항상 새로워요. 이젠 <디어 교하> 표지만 봐도 동네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디어 교하> 지난 호 보시고, 아틀리에 ‘다소니’에 다녀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문밖에서 안내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7월부터는 정상 수업 할 예정이에요. 코로나19로 동네 상권이 활기를 찾을 수 없어서 걱정되지만, <디어 교하>로 동네 소식을 서로 전하게 되네요. <디어 교하> 항상 응원합니다!

아틀리에 ‘다소니’

〈디어 교하〉 잡지를 읽은 사람들 반응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마실나온 듯 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너무 부러워하며 제 인생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김장을 같이 하며, 산책 나오듯이 들을 수 있는 동네 가게, 그리고 저마다의 달란트가 빛을 내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삶의 의미와 매일이 같은 일상을 누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디어 교하〉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너무도 편안한 글을 전문가의 손길로 만든 것 같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세상에서 천천히 주변 이웃과 맞추어 살아가는 동네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네를 꿈꾸는 다른 곳의 분들에게도 〈디어 교하〉가 용기를 주는 불씨이기를 바랍니다.

전현정

〈디어 교하〉 창간호를 보았을 때는 동네 잡지인지라 2호 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호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호보다 더 알찬 기사들로 꽉 채워진 〈디어 교하〉를 꼼꼼하게 다 읽으며, 이 동네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윤식

파주에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디어 교하〉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잡지가 다 있네'라며 참 새로운 형식의 글들을 만나게 되었고, 읽을수록 동네 이

야기와 장소가 참 이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 〈디어 교하〉에 소개된 곳에서 커피도 마시며 교하 구경을 다녔습니다. 〈디어 교하〉 덕분에 그냥 지나칠 뻔했던 곳과 이웃들을 알게 되어 파주에서의 생활이 즐겁습니다. 분기마다 발행되는 다음 호가 기다려지고 〈디어 교하〉이지만 파주 곳곳에서 접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잡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주

나는 파평 윤씨로 조상 대대로 교하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 왔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다. 그런데 그것이 알갱이 없는 껍데기였다. 교하에 살면서 생각만 그러했지 실제로는 무관심한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다. 교하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글을 쓰고 있는 〈디어 교하〉 기자단에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고향도 아닌 지역을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하가 토박이인 나를 부끄럽게 했다. 앞으로도 변치 말고 교하를 사랑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디어 교하〉 기자단 파이팅!

윤덕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디어 교하>, 고맙습니다. 평범한 동네 사람들 살아가는 일상을 좀 더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디어 교하> 파이팅!!!

고형권

동네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 구석구석을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주는 <디어 교하>. 이 마을 잡지가 풀어내는 글줄들은 겨울의 찬바람과 여름의 불볕을 막아주는 차양막이 되어 동네를 더욱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 동네가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소중합니다. <디어 교하>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있어 교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동구

<디어 교하>를 처음 창간할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디어 교하>를 만들어 온 것이 신기하면서도 너무 멋있습니다. 처음보다 내용도 더 풍부해지고, 마을의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았고, 중간중간 재미있는 요소도 있어 부담 없이 읽기도 편했습니다. 특히 지난 호에선 허허벌판이던 교하에 도서관이 생기는 과정을 사진과 글로 볼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들이 친근함과 정을 느낄 수 있어 앞으로도 <디어 교하>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김여진 학생

그동안 파주를 소개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들은 그저 예방 접종을 언제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언제인지 등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어 교하>에는 틀에 박힌 형식과 무엇을 알리기 위한 조금함이 없고, 푸근하고 인심 좋은 이웃 아줌마의 이야기나 '어디 가니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더라' 하는 우리 이웃의 평범한 일상이 한 편의 다큐처럼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었고, 다음에는 어떤 이웃의 이야기가 소개될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깃들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하에서 시작이 된 마을 잡지를 만드는 운동이 퍼져서, 파주의 곳곳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을 나누며 정이 물씬 우러나는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안광재

<디어 교하> 겨울호는 먼지를 후 불고 가끔 꺼내보는 추억의 앨범 같았어요. 흐릿함에 한 장 넘기고 반가움에 한 장 넘기고 아련함에 한 장 넘기고 아쉬움에 한 장 넘기고... 그렇게 마지막 장까지 넘기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교하를 추억하게 해주어서 <디어 교하>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디어 교하>를 손에 든 첫 느낌은? 예쁘고 고급지
대! 종이의 감촉도 따듯하고, 판형도 커서 시원한 느
낌이다. 몇 장 펼쳐보니 큼지막한 사진들이 눈을 사
로잡는다.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사진들과 교하
사람들의 소소하고 단아한 삶의 이야기들이 잘 어
우러져서 입가에 미소가 진다. 특히 사진은 차분하
고 단정하여 읽는 즐거움을 더했다. 표정과 배경, 사
진의 톤이 그 인물과 상황을 잘 전해주었고, 건축과
풍경은 시원시원하고 의도에 맞게 잘 선택되어 글
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다. 추후에 화보집을 만들어
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동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디어 교하>
No.5 2019년 겨울호야말로 참 멋지다!

도기공방 정수동

친구가 건네준 <디어 교하> 이게 뭐야? 하며 들쳐보
게 된 <디어 교하> 어느새 창간 3년이 되어가는 <디
어 교하>를 이젠 이번엔 뭐가 나올까 궁금해하며 기
다리는 애독자랍니다. <디어 교하>를 보며 내가 살
고 있는 곳이 무척 흥미롭고 좋은 공간이 많다는 것
을 알게 되었고, 감각적이고 뛰어난 사람들과 마음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느끼며 <디어 교하>
의 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궁금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 매호 기대감을 안겨주는 <디어 교
하> 사랑합니다!

김윤영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디어 교하> 8호 ♥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많은 것들이 보이죠. 어찌나 많은 애정을 품고 있는
지 사람들은 그걸 보며 “눈에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
는 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디어 교하>를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교하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깊고 진한
애정. 글마다 새 생명을 내놓듯 정성을 다한 그 마음
이 느껴져서 저도 한 글자 한 글자 감사한 마음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식당 ‘손수’의 작별 글을 읽을 땐 그
전에 한번 가보지 못한 게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노
래를 따라 부르며 목도 한번 가다듬어 보게 만들었
던 ‘파노라마’도 좋았고요. 하하. 우리 마을에서 과거
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돌아보며 꿈꿀 수 있도
록 잔잔한 길잡이의 역할을 훌륭히 해주고 있는 <디
어 교하>를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

김광선

내 기억의 시작은 파주에서 시작된 만큼 나는 파주
에서 놀고 자랐다. 그런데 <디어 교하>를 읽고 조금
충격이었다. 내가 봐왔던 파주가 전부인 줄 알았는
데, 주위를 좀 더 둘러보면 천연기념물 새들과 경관
좋은 산들, 또 그 산을 끼고 지역 주민과 정답게 소통
할 수 있는 작고 아기자기한 공방까지 웅기증기 모
여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덕분에 이곳이 여
유 있고 쉼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카페메이트

기사들이 다 재밌어서 정신없이 읽었다. 그 중 동글이님이 교하의 유래와 미래를 짚어준 글과 윤슬님이 영화 <니나 내나>의 이동은 감독과 나눈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마음님의 탐조 기사는 유익한 데다 맛깔스럽기가 그지없었다. 다만, 글의 사진 설명 중 내가 부의 상징인 400mm 카메라 렌즈를 갖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바로잡는다. 덩치만 큰 보급형 렌즈다. 마음님이 성공하셔서 진짜 부의 상징 렌즈를 사주시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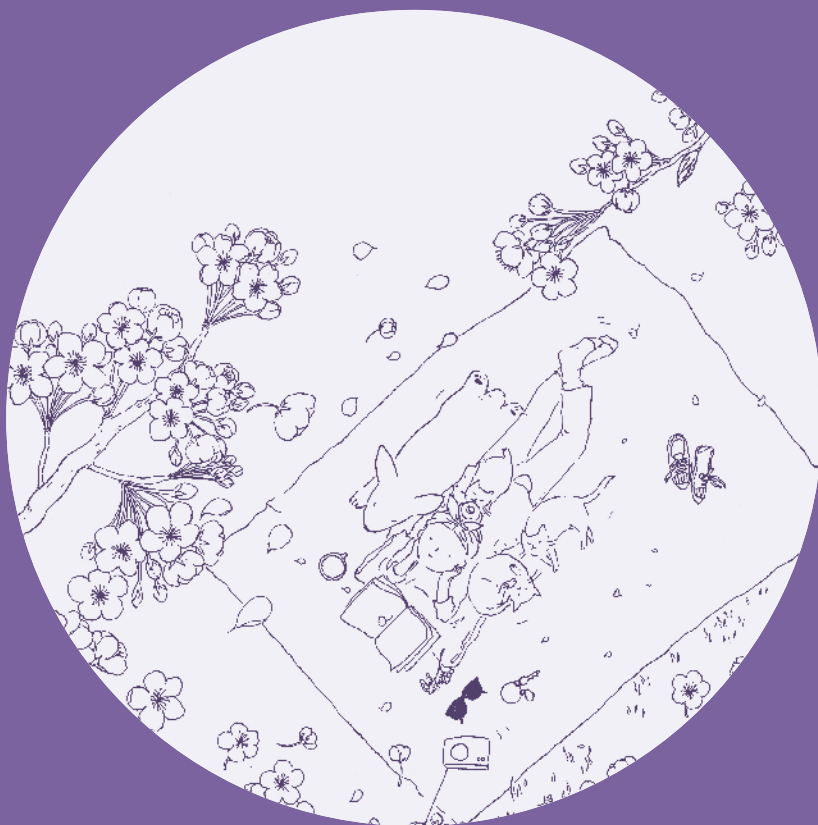
노마 조형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대화의 창이 열려 있어서 참 좋다. 온 세상이 재난으로 시끄러운데, <디어 교하>는 조용히 아름다운 정을 나누고, 재미있고 유익한 글들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이 잡지가 교하 지역 초·중·고생은 물론 젊은이와 늙은이들 간에도 소통의 장이 되어, 더욱 정겨운 삶의 이야기꽃을 피워갈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

기순담

<디어 교하> 기록 생산 후기

<디어 교하>는 마을 살이의 즐거움과 마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순기능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마을 잡지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마을 공간들을 찾아내 담을 것이다. 마을의 다양한 동식물 생명체들과 이웃하며 베풀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마을의 산책길들을 찾아 건강과 위로를 안겨 줄 것이다. 교하의 역사를 더듬으며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문화 예술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을 실어 나를 것이다. 각종 모임과 놀이, 창작활동이 벌어지는 곳을 찾아가 재미와 의미를 <디어 교하>에 담아낼 것이다.



Part

6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동희, 김지하, 박인애, 서상일, 이동구

김동희

생각해보면 내가 쓴 글이라고는 점수 따려고 안간힘을 내서 쓴 리포트와 논문이 대부분이다. 좀 더 생각과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니, 고등학교 때 여러 친구와 돌려쓰던 교환일기와 무료함을 깨우던 쪽지, 은밀하고 내밀한 말로 가득 채웠던 편지도 있다. 재미 삼아 끄적인 소설 몇 개도. 어쨌든 나의 짧고 오랜 삶에서 기록을 위해 뭔가를 써본 일은 거의 없다. **초등학교 때 억지로 쓴 일기는 타의에 의해 강요로 쓴 것이니 과감히 생략한다.** 전 세계와 온 우주가 알아준다는 기록문화를 꽃피운 나라에 살면서 기록도 안 하고 살았다. 애초에 기록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으니 변명도 충분하다. 현재와 미래를 향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와 지난 기억들에 되짚는 건 늙어서도 충분하다는 말만 들었다. 혁신과 발전, 새로움, 개혁, 전환, 개발 이런 말을 가슴에 새겨야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두고 온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 오래된 광덕시장이 있었다. 낡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시장건물은 즐거운 놀이터였고, 잃어버릴 보물로 가득한 대형 금고였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아 동네를 떠나고 대형마트가 불쑥 생긴 뒤 시장에는 아무도 가지 않게 되었다. 시장 사람들도 흩어지고 조용해진 시장 건물에는 가게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방앗간과 떡집, 김밥집, 과일가게와 채소가게, 몇 곳은 계속 장사를 했다. 사라져가는 사장 안에는 우영이 잔뜩 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뽀뽀 마른 김밥집 사장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김밥을 말았다. 김이 서린 밥을 김 위에 펴고 계란, 미나리, 당근, 어묵, 단무지, 우영을 넣고 대나무로 만든 김밥 발로 길게 말아 솔로 참기름을 쓱 바른 뒤 깨를 솔솔 뿌렸다. 보고 있으면 군침이 절로 났다. 김밥을 손에 쥐자마자 한입 가득 물고는 시장 안을 구경 다녔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아 골목을 이리저리 헤맸다. 숨겨졌던 비밀의 계단이 나오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른들 눈을 피해 몰래 올라간 옥상에서 동네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집과 친구네 집, 학교를 찾아보곤 했다. 내 기억 속 광덕시장은 낡았지만, 흥미로운 모험과 맛난 김밥으로 가득한 놀이공원이었다.

내가 놀던 광덕시장은 이제 없다. 기억을 더듬어야 어렵פות이 떠오른다. 지금이라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흥물이 된 시장을 놀이터 삼아 재밌게 놀던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남겨야겠다. <디어 교하>를 만난 지금은 능숙하게 사진도 찍고 기록하고 시장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포트만 쓰던 내가 기록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 기록자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지는 것과 두고 온 것을 붙잡기 위한 방법을 <디어 교하>를 통해 배운 거 같다.

김지하

나는 스스로를 ‘사진활동가’라고 부르며 사진을 통해 내 안의 것, 그리고 나를 둘러싼 것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해오고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미 기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배우고 활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기록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을을 기록하고 지역을 기록하는 작업은 마을잡지 <디어 교하>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쓴 이유는 내가 이웃들과 아카이빙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을기자단이라는 명칭을 쓰기 이전부터 모인 주민들은 아카이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은 ‘우리가 알리고 싶은 공간’, ‘소개하고 싶은 이들의 사연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하라는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를 남겨보자는 것이었다. 그 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교하를 아끼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디어 교하>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몰랐던 지역의 매력과 지역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나는 마치 교하라는 동네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내 몸을 둘러싼 하나의 조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일들도 이제는 <디어 교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기사가 된다. 한 명 한 명

의 모르는 이웃들도 각자 다른 이유로 교하라는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지언정 교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왠지 친근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바로 이런 애정과 호기심이 <디어 교하>를 통해 이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디어 교하>를 통한 기록 활동은 결국 이 지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방문하는 공간,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이해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함께 작업하고 있는 마을기자들, 기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마을의 사람들, 잡지를 보고 난 후 피드백을 주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보다는 서로를 고루 살피며 돌아가는 세상이 더 낫겠다는 확신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곳’과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거창한 기록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기록이 모인 <디어 교하>가 삶의 소소한 기쁨이면서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박인애

<디어 교하>에서 나의 필명은 ‘프리인애’다. 틀에 얽매이는 생활 속에서도 자유롭게 놀기를 좋아하는 나는 내 이름 앞에 프리를 붙여 ‘프리인애’가 되었다. 파주 교하신도시 문발동에 이주하여 마을 살이를 한 지도 어느덧 만 15년이 흘렀다. 여기보다는 저기를 동경하는 이상주의자였던 내가 한 마을에 이토록 오래 정 붙이고 살줄은 미처 몰랐다. 이곳에 살면서 <디어 교하> 마을잡지 기자단으로 활동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 이 마을이 뭐라고 나는 이곳을 사랑하는가?

이곳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일들은 우연에 의해 이뤄졌다. 우연히 이웃이 된 사람들과 우연

히 도서관에서 만났고, 우연히 세월호를 겪었고,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다. 우연히 집 근처 숲속 길을 산책했고, 우연히 동네에 오름처럼 솟아 있는 심학산을 오르고, 우연히 자전거를 탔고, 우연히 텃밭을 가꾸고, 우연히 노래모임을 했고, 우연히 마을잡지를 만들었다. 나는 우연이 만들어 낸 즐거운 마을 살이를 경험했고 그것들을 <디어 교하>에 기록했다.

신도시에서 우연히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이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더듬게 되었다. 마을 잡지를 통해 기록하는 일은 쏠쏠한 재미와 각별한 의미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디어 교하> 잡지에 일정한 형식을 두어 의무적으로 원고를 쓰라고 했다면 마을잡지가 꾸준히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디어 교하>는 내가 사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어서 기록한다. <디어 교하>는 내가 사는 마을에 누가 사는지를 알고 싶어 기록한다. <디어 교하>는 마을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나이테처럼 그려낸다. 나이테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지나온 세월이 자연스럽게 결을 그려내듯이 우연히 생긴 마을과 사람들의 결을 더듬어 기록한다.

<디어 교하>는 마을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을 살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사는 작은 공간을 알아가고 내 이웃의 삶을 공감하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별 것 아닌 것이 아닌 소중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성장했다. <디어 교하>는 신도시 파주 교하를 꾸준히 담아냈으며 신도시 이전의 파주 교하에도 관심을 가졌다. 마을을 사랑하다 보면 마을의 내력이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디어 교하> 잡지 기자단의 공통점을 꼽자면 마을에 대한 호기심이 풍부한 사람들로 모였다는 것이다. 마을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디어 교하>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

<디어 교하> 기자단 워크숍^{2017년 5월, 교하도서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고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구술 인터뷰와 사진이었다. 내 가족을 인터뷰하고 인물사진을 담아오는 숙제를 했다. 인터뷰어가 되어 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기는 처음이었다. 굉장히 긴장됐다.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어의 의도가 담긴 질문이 인터뷰이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에게 다가가는 자세에 있어 최대한 편견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인터뷰 수업은 기자단끼리도 진행했다. 내가 상대방의 인터뷰어가 되어 질문하여 기록해 보고, 내가 상대방의 인터뷰이가 되어 질문을 받고 인터뷰어의 기록을 보는 작업이었다. 나는 이 과정을 겪으며 누군가를 기록한다는 것의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내게는 인터뷰라는 형식이 아직 버거움을 느꼈다. 원래 마을 잡지는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계획이었으나 나는 글쓰기 방향을 마을에세이로 돌렸다. 나는 먼저 나의 마을 살이를 기록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마을 잡지는 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자에게 어울리는 글쓰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문발에세이는 프리인애의 문발동 마을 살이 기록이었다. 나의 첫 에세이는 “마당 이야기”였다. ‘마당’이라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진 배경과 마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모임들과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이야기를 담았다. <디어 교하> 첫 잡지에 실린 마을에세이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공간 소개에 집중하다 보니 인간에 소홀한 부분이 보였다. 프리인애 에세이는 프리인애가 마을의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를 기록하는 글이었다. 첫 에세이의 아쉬움을 접고 2호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에서 놀았던 나의 경험을 녹여냈다. 텃밭 놀이, 자전거 라이딩, 걸어서 심학산 가는 길, 파주 근현대 역사의 길, 마을에서 역사동화 글쓰기 모임, 파노라마 합창단과 노래 부르기, 우울한 마을 산책까지 기록했다.

변두리 마을 살이를 시시콜콜 기록하는 일이 자질구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을 잡지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진 뒤의 반응은 반가움이었다. 앗, 우리 마을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꼭 가보고 싶다. 아, 그 곳, 오, 그 사람, 나도 봤어. 오오! 세상에나! 그랬구나!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마을의 어떤 곳, 어떤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새롭게 보인다. 마을 잡지의 기능은 주변부에 위치한 우리의 삶에 주목하여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고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반응들을 접하며 나는 마을과 이웃에 새록새록 정이 들었다. 마을 잡지 <디어 교하>는 마을을 기록하는 활동가들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 살아있는 마을공동체 잡지로 성장하고 완성된다.

서상일

대체 지역 정보·지역 기록은 왜 찾아보기 힘들까? 한때 2005~2007년 학업을 위해 대구에 잠시 살면서 품은 의문이었다.

새로운 곳인 대구에 오게 되었으니, 대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오래 생활한 사람들에게도 물어 보았다. 이곳에 괜찮은 문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좋은 책방이 있는지? 지역 예술단체가 있는지? 역사 유적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나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아해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아쉬운 사람이 직접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소극장을 찾고 책과 관련한 문화공간도 찾았으며, 역사 유적도 찾아 다녔다. 특히, 대구의 헌책방을 하나 하나 찾아다니며 주인장을 인터뷰하고 헌책방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천선영 교수가 이끄는 <이야기가 있는 경북대 문화지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8년 6월, <일상 문화 공간 -대구 일상문화공간 탐방보고> 노벨미디어, 2009년 4월 작업에도 참여했다. 지역에도 발품을 팔아 찾아보면 많은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었다.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은 아니었다. 긴 기간이 아니라도 한동안 대구에 살게 되었으니, 그 지역을 알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싶었다. 실제로, 덕분에 대구 사람들도 잘 모르는 대구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후, 직장 생활을 위해 파주출판단지가 있는 파주 교하로 이사 왔다 2008년 3월. 그런데 이곳에서는 지역 정보를 찾기가 훨씬 더 힘들었다. 지역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다. 오히려 무엇이든 서울로 나가서 찾고 해결하는 게 빨랐다. 한동안 서울로 향했다.

그러다가 교하도서관을 만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하라는 장소에 기반을 두고 무언가를 해 보고자 꿈틀대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교하도서관에서 마을을 주제로 한 연속 강연회 *걷는 동네, 마을의 기록*이 있었다. 홍대앞의 ‘스트리트 H’를 비롯한 마을 잡지 관련 강의도 여럿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잘 만나면 함께 마을 잡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이. 기회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2017년에 기회가 왔다. 김지하, 박채란 두 명의 예술가가 마련한 ‘디어 교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마을 잡지 <디어 교하> 창간호를 낼 수 있었다. 참, 운이 좋았다.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얻었다. 이왕 마을 잡지를 시작했으니, 자료를 찾아보면서 관련 지식을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한국구술사학회에서 나오는 <구술사연구>에 실린 논문들이 도움이 되었다. 마을 잡지를 하다 보니, 지식과 현장을 연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디어 교하>의 인기에 힘입어 민간 아카이브 활동도 하게 되고, 마을 잡지 인큐베이팅과 컨설팅도 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긴 워크숍 과정을 통해 파주읍의 마을 잡지 <주내 주민>의 창간을 이끌었으며, ‘작은도서관의 시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인천의 늘푸른어린이도서관에서 역시 긴 워크숍 과정을 통해 기록 활동을 벌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아카이브 북>도 내게 되었다.

이제 15년 전과는 다르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일상 공간에 대한 관심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쩌면 지역 기록이 관심을 받는 때가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나를 기록 활동으로 이끌게 되었다.

이동구

교하라는 신생 택지개발지구로 이주를 한 것은 2006년이였다. 도시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한 걸음 떠나서 살고 싶었다.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퇴근하고 귀가하며 호흡으로, 피부로 느끼는 공기는 자연의 그것과 무척이나 가까이 있었다. 직장을 그만둔 2018년 봄까지 교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발만 내딛으면 자연이고, 시골이다. 천연의 푸름이 늘 동네 주변에 있었다. 주된 삶의 공간이 서울이었던 동안에는 교하는 물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의 대부분을 교하에서 지내게 되면서 늘 안식과 휴식을 제공하던 동네가 어느 순간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서관을 드나들기도 하고, 주말에만 다닐 수 있었던 주변의 휴식 공간을 평일에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었지만 오히려 나들이 횟수는 줄어들어 갔다.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방안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은 그 공간을 더욱 더 공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회사라는 공간의 부재는 내 주변의 진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진공 속에서 <디어 교하>와의 첫 인연은 원고 청탁으로 시작되었다. <디어 교하>에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공동체, 아카이브, 기록 활동가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 일반적인 잡지의 독자투고 정도로 생각했다.

몇 번의 편집회의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글을 쓰게 되었고, 물 흐르듯 기자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자단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디어 교하>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기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진 글을 써야겠다는 치기어린 욕심은 이내 1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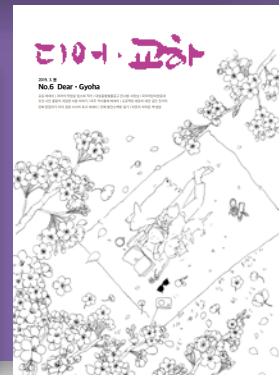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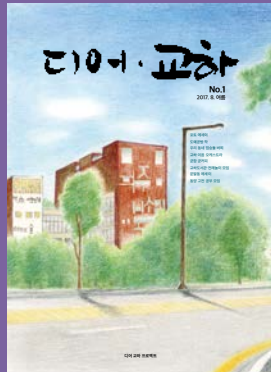
휴식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만족했던 그 곳에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가차없이 밀려나가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삶에 치여 지나칠 때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변이 눈에 들어오면서 나 역시 공간에 스며들어 감을 느낀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정서적인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낀다.

<디어 교하>가 아니었더라도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어 교하>가 그 시간을 훨씬 단축시킨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싶다.

내가 <디어 교하>에 쓰고 있는 글들이 과연 공동체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써 온 기사들은 주로 내 생각과 의견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어 교하> 역시 전적으로 기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기록이라고 보기엔 무척이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일 수 있으니 말이다.

마을 잡지는 지금을 기록하는 한 장의 사진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을 잡지의 기자들은 한 장의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똑같은 남대문을 찍은 사진이더라도 현재의 사진과 80년 전의 사진의 가치는 현저히 다르다.

<디어 교하> 기자의 일원으로 아직까지는 기록이라기보다는 스냅샷을 남기는데 급급하다. 하지만 최대한 왜곡 없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느낀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공동체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남겨 두는 것, 굳이 기록활동가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기에는 터무니없이 소소한 가치일 수 있다. 하지만 겉멋 번지르르한 글에 집착했던 아마추어 글쟁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조차도 엄청난 변화인 듯하다.





경기아카이브총서 3

마을 잡지, 마을을 기록하다

지은이 서상일, 김동희, 김지하, 박인애, 이동구<<디어 교하> 마을 기자단>

진행 강석주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6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 23번길 68 (신흥동 123-69)
TEL. 031. 252. 5237 / FAX. 031. 246. 4021

제작 디자인 펌킨 TEL. 031-893-8315

ISBN 978-89-93395-97-6

978-89-93395-73-0(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총서의 원문은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memory.library.kr)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경기아카이브총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비매품

ISBN 978-89-93395-97-6

ISBN 978-89-93395-73-0(세트)

